

교과서연구

제 50 호

2007. 4

차 례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발행인 / 박현수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곽상돈, 김대원, 김정호,
윤광원, 최해홍, 홍후조
- 편집협력위원(시·도 교육청)
김광하(서울), 박경옥(부산),
권충현(대구), 최은아(인천),
김원익(광주), 김창수(대전),
변동섭(울산), 고경식(강원),
손영철(충북), 조재영(충남),
홍진석(전북), 박광춘(전남),
권재경(경북), 김영기(경남),
양영선(제주)

권두언

교육과정 개정의 의의와 현장 정착을 위한 과제 / 류영국 4

특별 기획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알아본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 / 박제윤 6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 금용한 12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 / 박미현 20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 / 박상화
..... 25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 / 박형규
..... 31

현장 교육

개인차를 고려한 자기 주도적 학습 교과서(수학) 시험 적용 사례
/ 최대위 39

논 단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 편찬상의 과제 / 김만곤
..... 43

교과서 관련 법규 문제는 없는가? / 김정호 51

연 재

스웨덴의 교육과 교과서 제도 / 고민정 58

* 표지 글씨 : 신두영

* 편집·디자인 : 대한교과서(주) 편집팀

교과서 편집자의 변

쉽게 쉽게 만들어도 교과서는 어렵다? / 이광옥	62
그래도 편집 덕에 ! / 유 훈	66

단 상

더 행복한 국어 수업을 위한 몇 가지 생각 / 이우경	69
-------------------------------------	----

탐 방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21) - 오병목 / (주)천재교육 사장	73
--	----

자 료

2006년도 연구 보고서 소개	76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78

■ 연구재단 소식	79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81
■ 「교과서연구」 원고 모집 안내	82
■ 제5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안내	83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84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1동 1018-2 세원 빌딩 4층
- 홈 페이지 : www.ktrf.re.kr
- 전화 : (02) 2651-1950, 팩스 : (02) 2651-1954, E-mail : editor@ktrf.re.kr

▣ 교육과정 개정의 의의

원 두 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 28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한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의 특징을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으나 개정의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과거의 교육과정 개정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첫째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2003년부터 도입한 수시 개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기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일시에 총론과 모든 교과에 걸친 전면적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상의 혼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이나 체제는 유지하면서도 그 동안의 사회적 변화와 각계 각층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를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의의와 현장 정착을 위한 과제

글 류영국(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둘째로, 총론과 각론을 동시에 개발한 것도 이전과는 다른 점이다. 그 동안의 개정에서는 총론에 대한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각 교과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절차로 추진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총론이 확정된 상태에서 각 교과는 주어진 시간과 틀 속에서 제한적인 모습으로만 논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총론과 각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총론과 각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 교과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총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로, 교육과정의 개발과 공론화 과정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각 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 협의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개발된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실제로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교육과정심의회 또한 과거 교육과정 개정 시안이 개발된 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상설 운영 체제로 전환하여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개정안이 확정되는 전 단계에서 운영하였고, 구성에 있어서도 그 동안의 교원과 전문가 중심의 구성에서 탈피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 산업체, 시민 단체, 학부모 등의 참여 비율을 높여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논의와 참여를 통하여 열린 방법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련 이해 집단 간의 의견 충돌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과거와는 달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에서 이익과 관련된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 낼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집단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조율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요한 역할이며 과제라고 하겠다.

▣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과제

이번 개정된 교육과정은 2009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것이 교과서 개발이다.

이미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연구 개발과 검정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서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부에서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하여 검 인정 확대, 검정 제도의 개선 등 교과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1세기 다원화, 정보화 사회에 국정 도서가 지역 사회 및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담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많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국정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제로의 전환 요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검정 전환으로 인한 교육 내용의 통일성 확보가 어려운 점, 교과서 제작 비용의 증가, 초등학교 검정 전환에 대한 낮은 선호도의 문제, 중등 학교 도덕, 국어, 국사 교과와 경우 특정 집단의 편향된 이념 내용 반영에 대한 대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검 인정 확대뿐만 아니라 현행 검정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질 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검정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주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과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등의 논의가 보다 큰 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부에서는 현재보다 더욱더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갈 것이다.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이 교육과정이 고시되기까지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으며, 집단 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게 마련된 교육과정을 현장에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 등 교육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연**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알아본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

글 박제윤(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장)



1. 개정의 배경과 경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 호로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하였다.

이번 개정은 1997년 12월 30일 개정·고시하여 지난 2000년부터 적용해 온 ‘제7차 교육과정’을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 보완하는 ‘수시 개정’¹⁾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으며, 개정된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초·중등 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설정,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 확대, 교육과정 평가와 질 관리의 강화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였으므로 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시행상의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제 일선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교원, 시설 등 제반 여건이 충분치 못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 증가, 당초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 등 적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또, 급변하는 시대 사회의 변화,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반영

요구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 부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 현행 교육과정의 적용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 연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교육과정 총론과 각 교과 및 영역별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연구·개발하였다.²⁾

또, 각종 토론회 공청회³⁾, 현장 적합성 검토⁴⁾, 교육과정심의회⁵⁾, 여론 수렴 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현장 적용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개정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을 최소화하였다.

즉, 시대·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개정 요구에 따른 전 교과에 걸친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중심,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철

학과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 목표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10년간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수업, 재량 활동 운영 등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여 수시 개정적 성격을 갖는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이 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수업 시수의 일부 조정, 과학·역사 교육 강화, 단위 학교의 재량권 확대,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등 사회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이번에 고시된 새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업 시수 일부 조정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주5일 수업제의 월 2회 시행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하고 학년별 총 수업 시수를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 운영 지침에서 감축 운영해야 할 특정한 영역이나 교과를 지정하지 않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데 현재 감축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재량 활동이나 특별 활동에서 감축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의 체험 학습이나 인성 교육 및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주5일 수업제 월2회 실시에 따라 수업 시수를 연간 34시간 이내에서 감축하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2~3학년은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은 재량 활동 중에서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 재량 활동에서 감축하도록 하였다.

이는 특별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천 중심의 다양한 체험 교육을 통해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7차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초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을 전제로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 조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현재까지 주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에 따른 편제와 시간 배당 조정은 제외하게 되었다.

(2) 과학·역사 교육 강화 등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의 반영

사회·문화적 발달 및 변화 등에 따라 생성되는 교육 내용의 증대와 사회의 지속적 발전 및 발달,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수합된 다양한 요구와 민원 등을 종합하여 관련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서 범교과 학습 내용으로 반영하도록 제시하였다.

특히,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과학적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 수업 시수를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증대하였다.

또,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역사 교육을 위해 중·고등 학교의 사회 교과에서 '역사' 과목을 독립시키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하는 한편, 고등학교 1학년의 역사 과목 수업 시수를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대하였다.

(3) 단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이수가 가능하도록 '교과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의 음악과 미술의 경

입시 위주의 편중 선택을 방지하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2, 3학년에서도 체육과 음악, 미술을 분리하여 각각 1과목 이상은 이수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는 미래에는 국민들이 체육, 음악, 미술을 향유하는 토대 위에 형성되는
문화적 창의성이 곧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우 주당 1시간씩으로 배당되어 있는 수업을 1학
기에는 음악을, 2학기에는 미술을 각각 주당 2시
간 수업하는 것이 가능하며, 1, 2학년 주당 1시간
씩 배당되어 있는 수업을 1학년에서만 주당 2시
간 수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중학
교 3년간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2년에 집중하여
각각 주당 2시간씩 수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재량 활동은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중·고등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
침에 따라 영역별 시간 배당을 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에서는 학교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에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
다. 이들 학교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경우 총 이수 단위(60단위) 안에서 교과별 이수
단위 수의 증감을 허용하고,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외의 선택 과목은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율
적으로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선택 과목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위해 선택 과목에 따라 다양한 단위
수(4, 6, 8단위)를 6단위로 조정(교양 등 일부 과

목만 4단위)하고,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의 구분
을 폐지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운영상의 혼란을
해소하였다.

또, 고등학교 선택 과목군은 현행 5개 과목군
에서 인성 정서 교육을 위해 예 체능 과목군은 체
육 과목군과 예술 과목군을 분리하여 6개 과목
군으로 수정하였다⁶⁾.

이에 대해서는 공청회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
었으나, 입시 위주의 편중 선택을 방지하고 지덕
체의 조화로운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2, 3학년에서도 체육과 음악, 미술을 분리하여 각
각 1과목 이상은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
영하였다. 이는 미래에는 국민들이 체육, 음악, 미
술을 향유하는 토대 위에 형성되는 문화적 창의성
이 곧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택 과목군을 확대하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
획이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필요한 경우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문 교과를 개설하거나 국
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과목 이외의 선택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특
성화를 촉진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하며,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새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한 국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각 교과 내용에 반영하여 개편하였으며, 교육과정 내용의 분량이 많고 수준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여 학습 분량을 축소하도록 하였다.

3. 새 교육과정 적용과 향후 일정

이번에 고시된 새 교육과정은 2009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⁷⁾할 예정이며, 새 교육과정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이 보다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또, 새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리플릿 등 각종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교육과정 해설서와 각종 연수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사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함으로써 학교에서 새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과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수용하는 방안 등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큰 틀에서 새로운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

【별첨】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총론 신·구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교육과정의 성격	○ 교육과정 고시의 법적 근거 - 교육법 제155조 제1항	○ 교육과정 고시의 법적 근거 -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2항	○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추구하는 인간상	○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등	○ 현행 유지	○ 제7차 교육과정 철학 유지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기본 능력 육성 등	○ 현행 유지 - 수준별 교육과정 내용 삭제	○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 고시(2006. 8. 29.) 반영
교육 목표	○ 학교급별 교육 중점 및 교육 목표를 교육과정에 제시	○ 현행 유지	○ 제7차 교육과정 철학 유지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 초등학교 1, 2학년 : 830, 850 - 초등학교 3, 4학년 : 986 - 초등학교 5, 6학년 : 1,088 - 중학교 1~3학년 : 1,156 - 고등학교 1학년 : 1,224(72) - 고등학교 2, 3학년 : 144(136+8)	○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 초등학교 1, 2학년 : 830, 850 - 초등학교 3, 4학년 : 952 - 초등학교 5, 6학년 : 1,054 - 중학교 1~3학년 : 1,122 - 고등학교 1학년 : 1,190(70) - 고등학교 2, 3학년 : 140(132+8)	○ 월2회 주5일 수업제 반영, 수업 시수 감축 ※ 초등학교 1, 2학년 : 현행 유지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 중·고등 학교 사회 교과(고등학교 1학년 국사 : 주당 2 시간) - 고등학교 1학년 과학 : 주당 3 시간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 중·고등 학교 사회, 역사 과목 분리(고등학교 1학년 역사 : 주당 3 시간) - 고등학교 1학년 과학 : 주당 4 시간	○ 역사, 과학 교육 강화 요구 반영
	○ 고등학교 보통 교과 - 일반 선택, 심화 선택 구분	○ 고등학교 보통 교과 - 선택 과목으로 단일화	○ 사회적 요구 반영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 고등학교 선택 과목 신설 - 교양 교과에서 전문 교과 개설, 과목 신설	○ 고등학교 선택 과목 신설 - 보통 교과에서 전문 교과 개설, 과목 신설	○ 학교 단위 자율성 확대
	○ 외국어 계열 필수 과목 - 각 외국어 I 및 청해	○ 외국어 계열 필수 과목 - 기초 외국어(심화 영어), 청해, 회화 I, 문화 I, 독해	○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 강화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본 지침	○ 재량 활동 - 초등학교 : 교과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 - 중학교 : 교과 재량 3시간, 창의적 재량 1시간 - 고등학교 1학년 : 교과 심화·보충 4,6단위, 선택 과목 4~6단위, 창의적 재량 활동 2단위	○ 재량 활동 - 초등학교 : 창의적 재량 활동 - 중학교 : 재량 활동 3시간 - 고등학교 1학년 : 재량 활동 6단위	○ 재량 활동 운영의 학교 자율권 부여 ※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시수 감축
	○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과목군 : 5개 - 인문 사회 과목군 - 과학 기술 과목군 - 예 체능 과목군 - 외국어 과목군 - 교양 과목군	○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과목군 : 6개 - 인문 사회 과목군 - 과학 기술 과목군 - 체육 과목군 - 예술 과목군 - 외국어 과목군 - 교양 과목군	○ 선택 과목의 불균형 이수 문제 해소 ○ 인성, 교양 교육 강화
	○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선택 과목 - 최소 28단위 이상, 최대 50% - 2단위 증감 운영	○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선택 과목 - 최소 28단위 이상만 규정 - 2~4단위 증감 운영 허용	○ 학생 선택권 강화 ○ 단위 학교 자율권 확대
	○ 실업계와 기타계 고등학교 - 보통 교과 82단위, 전문 교과 82단위 이상	○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 보통 교과 80단위, 전문 교과 80단위 이상	○ 월2회 주5일 수업제 반영, 단위 수 감축
시 도 교육청 편성 운영	○ 특수아 및 귀국자 자녀 교육 관련 사항	○ 특수아, 귀국자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관련 사항	○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요구 반영
	○ 교과 이수 기회 보장 -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위한 다양한 기회 마련 및 지역 사회 연계	○ 교과 이수 기회 보장 - 고등학교 선택 과목 - 국민 공통 기본 교과(전 편입학, 귀국 등 사유)	○ 학생 중심 교육 과정 구현
지역 교육청 편성 운영	○ 특수아 및 귀국자 자녀 교육 기회 마련	○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기회 마련	○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요구 반영
학교 편성 운영		○ 중 고등 학교 학기, 학년 집중 이수 허용 조항 신설	○ 단위 학교 자율성 확대
	○ 범교과 학습 - 민주 시민 교육 등 16개 영역 예시 - 재량 활동에서 중점 지도	○ 범교과 학습 - 기존 16개 영역에 청렴 반부패 교육 등 19개 영역 추가 -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 지도 강조	○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 ○ 범교과 학습의 내실화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 계기 교육 관련 조항 신설 -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 목적 - 별도 계기 교육 지침 준수	○ 계기 교육 관련 근거 마련
	○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 개설	○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 개설	○ 방과 후 학교 관련 내용 근거 마련
교육과정 평가 질 관리	○ 교육과정 관련 국가 수준 및 단위 학교 평가	○ 교육과정 관련 국가 수준,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 평가 - 시도교육청의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근거 마련	○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질 관리 강화
특수한 학교 교육과정	○ 방송통신고등학교 이수 단위 - 172 단위	○ 방송통신고등학교 이수 단위 - 170 단위	○ 월 2회 주 5일 수업제 반영, 수업 시수 감축
		○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관련 -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총 이수 시간 범위 내 증감 운영 가능 - 선택 과목 자율 편성	○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관련 근거 마련 ○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의 자율적 운영 보장

- 1)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고시 이전에도 2004년(2004. 11. 26.)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4-85 호)을, 2005년(2005. 12. 28.)에는 공업계 고등학교 2·1 체제 교육과정과 국사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5-10 호)을, 또 2006년(2006. 8. 29.)에는 수학·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6-75 호)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수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 2) 교육과정 개정 기초 연구는 2004년 12과제, 2005년 4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는 2005년 14과제, 2006년 58과제가 수행되었다.
- 3) 교육과정 개정 시안 토론회 및 공청회는 2005년 10월부터 11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 등 2차례에 걸쳐 총론 및 각 교과별로 실시되었다.
- 4) 현장 적합성 검토에는 전국 총 3,760개 학교의 교사와 전국 단위 교과 연구회 37개, 교육과정·교과서발전협의회(정부 부처 및 위원회) 등이 참여하였으며, 우리 부의 교육과정·교과서 정보 서비스 홈 페이지(cutis.moe.go.kr)

- 를 활용하여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교육과정심의회는 운영 위원회 1개, 학교별 위원회 8개, 교과별 위원회 91개 등 총 100개 위원회, 1,38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6) 고등학교 선택 과목군은 인문·사회 과목군, 과학·기술 과목군, 체육 과목군, 예술 과목군, 외국어 과목군, 교양 과목군 등 6개 과목군으로 조정하였다.
 - 7) 새 교육과정 초·중등 학교 적용 일정
 - 2009년 : 초등학교 1, 2학년
 - 2010년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 2011년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 2012년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 2013년 : 고등학교 3학년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알아본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글 **김용한**(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관)



지난 2월 28일 새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되었다. 2000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1997년 고시)이 그 적용 기간이

7년여가 경과되면서 그 동안의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주5일 수업제 월2회 실시 등 교육 현장의 여건 변화와 국가·사회적인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필요성에 의해 제7차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한 것이다.

새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제7차 교육과정의 철학인 학습자 중심,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및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한 부분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총론의 변화보다는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및 교과별 학습 요소의 정선을 통한 학습 분량 축소 등 각 교과별 교육과정에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시안을 개발하고 시안에 대해 토론회·공청회, 현장 적합성 검토, 교육과정심의회,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총론 및 교과별 교육과정의 주요 개

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총론 개정 내용

(1) 수업 시수 조정

현재 주5일 수업제 월2회 실시에 따라 학교에서는 수업 시수를 연간 34시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중심으로 감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초등학교(1, 2학년 제외)에서는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감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표 1】 초등학교 시간(단위) 배당 기준 신·구 대조표에서 개정 후의 기준표를 보면 34주를 기준으로 제시한 교과별 수업 시간 수와 특별 활동 및 재량 활동의 총 합은 연간 수업 시간 수보다 34시간이 적다. 이는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간 수를 주5일 수업제 월2회 실시에 따라 연간 34시간 감축한 시간 수이며,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 시간 수 중에서 연간 34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축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감축하더라도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게 하고, 일상생활

현행 교육과정상의 특수아, 귀국자 자녀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시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 소통 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범교과적 학습 주제와 관련되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쓰도록 하였다.

2. 교과별 개정 내용

(1) 국 어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수준별 교육 내실화, 텍스트(담화/글) 생산·수용을 중심으로 한 지식, 기능, 맥락의 통합, 언어 행위를 성찰하는 학습자 지향, 소통성과 친절함의 강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연계성 강화,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체’ 관련 내용의 강화 등이다.

국어과 성격에서는 국어 교육에 대한 비판과 요구, 내용 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하였으

며, 영역별 목표 진술 방식을 ‘지식’, ‘기능’, ‘태도’를 중심으로 목표를 진술한 것을 총괄(전문) 목표와 구체적 하위 목표로 구분하고 교과 목표를 학습자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내용 체계를 ‘본질’, ‘원리’, ‘태도’, ‘실제’로 구분하여 제시했던 것을 내용 요소 체계를 ‘실제’, ‘지식’, ‘기능’으로 구분하고 이를 맥락과 관련지어 제시하였으며, ‘내용+행동’의 구조로 내용을 5~7항목으로 진술하고, 각 항목에 대한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를 ‘기본’, ‘심화’로 구분하여 제시하던 것을 ‘실제’와 ‘내용’의 관계는 내용 중심에서 실제(텍스트 생산·수용 활동)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내용 영역은 제7차 교육과정의 6개 영역 체계를 유지하였으며 ‘국어 지식’을 ‘문법’으로 바꾸었다.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의미 있는 국어 학습 경험을 강조하였으며, 수준별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 개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평가는 변화된 내용 체계에 따라 평가 목표와 방법을 보완하였으며, 성취 기준, 텍스트(담화/글), 내용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년별·영역별 평가 내용 설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 결과 보고 체계의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2) 도 덕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 확립,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규범, 도덕적 쟁점 강조, 도덕적 탐구 강화, 학교급별 도덕과 교육의 특성 부각, ‘도덕과 교육과정 연구 공동체’ 구성을 통한 참여식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목표에 있어서는 학교급별로 차별화를 두었고, 초등학교 목표를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 함양에 두었으며, 도덕과 교육 내용의 적정화 및 정련화에 있어서 초

분수 개념을 도입할 때, 도형을 같은 모양과 크기로만 등분할하도록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에 제시함으로써 지나치게 어려운 맥락에서 분수 개념을 다루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3학년에서는 양감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무게를 어렵하고 재어 봄으로써 양감을 기른다.’라는 학습 주제를 보강하였으며, 4학년에서는 ‘자연수의 사칙 계산’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에 ‘지나치게 복잡한 자연수 혼합 계산은 다루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6학년에서는 겹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강조하고 원기둥의 전개도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지도 수준을 약화시켰다.

‘교수·학습 방법’에서 수정·보완된 내용은 ‘필수 학습 요소’를 ‘성취 기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고, 보충·심화 학습의 세부 사항에 대한 언급은 삭제하였다. 그리고 수학과 교수·학습에서 권장될 만한 교수·학습의 예를 발견 학습, 탐구 학습, 협동 학습, 개별 학습, 설명식 교수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수학적 사고와 추론 능력 발전을 위한 유의점, 의사 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유의점,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유의점,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신장을 위한 유의점 등을 독립된 항목으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5) 과 학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의 중복을 개선하고 통합을 지향하여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 단원수를 줄였다.

내용의 물질 영역에서는 3학년 ‘물체와 물질’ 단원에서 기초 탐구 활동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가루 물질 녹이기 등 많은 내용을 삭제하였다. 4학년의 ‘물의 상태 변화’ 단원에서는 물과

얼음 간의 상태 변화에서 무게와 부피 변화로 제한하였고, 탐구 활동에서 낭비되는 수돗물의 양을 추정하는 활동은 수돗물의 사용량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6학년의 ‘산과 염기’ 단원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내용인 실생활에서 산성과 염기성 용액의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생명 영역에서는 4학년의 생물 영역 두 단원을 연속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계절을 고려하여 단원의 순서를 ‘동물/식물의 한살이’, ‘동물/식물의 세계’로 구성하였다. 6학년의 ‘생태계와 환경’ 단원에서는 탐구 활동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탐구 활동 중에서 ‘생태계 관련 놀이하기’와 ‘환경과 생물의 관계 알아보기’ 활동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지구와 우주 영역에서 3학년 ‘날씨와 우리 생활’ 단원에서는 내용 진술 순서를 날씨 변화에 대한 인과 관계를 반영하여 ‘온도, 풍향 풍속, 구름, 비’ 등의 순으로 재정렬하였다. 4학년 지구 과학 영역에서는 석회암을 삭제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현행과 대동소이하나 과학 글쓰기와 토론 강화 방안 제시, 학년별 자유 탐구 주제 예시, 자유 탐구 관련 항목 제시 등을 통해 과학 글쓰기와 토론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에 있어서는 논술형 평가 방법을 추가하였다.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유 탐구’ 활동의 도입이다. 즉, ‘과학’의 내용은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영역으로 구성하되, 기본 개념과 탐구 과정이 학년과 영역 간에 연계되도록 한다. 또,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할 수 있는 ‘자유 탐구’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6) 실 과

실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학년별, 영

‘신체 활동 지식’을 단위로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을 설계하였으며,
 신체 활동 지식은 국가 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으로 정립되었고,
 과거의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체조, 육상, 수영, 축구, 농구 등은 수업 차원의 교수·학습 활동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역별 내용 중 유사한 주제 또는 활동을 통합하여
 단원 수를 축소하는 등 학습 내용의 적정화, 초등
 학교 실과의 경우 실습 주제는 학교 사정이나 지
 역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
 함으로써 학생과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
 을 마련하였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내
 용 추가 및 전통 이해 교육 강조 등 국가·사회의
 요구 사항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체계는 제7차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의 내용 체계 중 가족과 일의 이해를 ‘가정 생활’
 로, 생활 기술을 ‘기술의 세계’로 수정하였다. 교
 수·학습 방법에서는 교사들의 가독성을 높여 활용
 을 돕기 위하여 관련된 내용을 ‘교수·학습 계획의
 수립’,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자료 및 활
 용’의 3개 분야로 유목화하였고, 내용을 대강화
 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7) 체 육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체육과 성격을 ‘운동 기능 중심 교
 육과정’에서 ‘신체 활동 가치 중심 교육과정’으로
 의 교육과정 개정 철학에 입각하여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체육과 성격은 ‘신체 활동’을 교육하
 는 체육과의 정의, 체육과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정립,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의 개념 틀, 학교급별
 체육 교육의 방향이라는 체제 속에서 기술하였다.

체육과 목표를 심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
 적 영역이라는 학습 영역별 목표의 분류 방식을
 지양하고 통합적으로 설정하였다.

체육과 내용은 그 동안 수 차례의 교육과정 개
 정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고수해 왔던 스포츠 종목
 중심 내용 구성 틀을 지양하고, 체육과 내용을 재
 개념화한 ‘신체 활동 지식’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신체 활동 지식’을 단위로 국가 수준 체육과 교
 육과정 내용을 설계하였으며, 신체 활동 지식은
 국가 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으로 정립
 되었고, 과거의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체조, 육상, 수영, 축구, 농
 구 등은 수업 차원의 교수·학습 활동으로 재정립
 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체육과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 효율성이라는
 교사 중심 지향성에서 그 동안 수업의 과정에서
 간과해 온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
 하였으며, 평가는 ‘평가 위주의 체육 수업’을 지
 양하기 위해 평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
 였다.

(8) 음 악

음악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음악의 다양한
 역할 및 기능 부각, 음악의 생활화 강조, 국악 교
 육의 질적 제고, 세계 음악 문화의 이해력 증진 등
 을 들 수 있고,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는 달리

새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을
교수·학습 계획, 교수·학습 방법, 학교급별·내용 영역별 지도,
교수·학습 시설 및 기자재 등으로 구분하고, 그에 관련한 내용을 명료화·구체화하려고 하였다.
국악 내용에 대한 지도상의 안내를 위해 특별히 국악 지도에 대한 유의점을 포함하였다.
그것은 신체 표현 강조, 구음 지도 강조, 국악보 활용 강조 등에 대한 것이다.

학교급별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내용 체계도 활동, 이해, 생활화로 구분하고 학습할 내용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큰 특징이다.

새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을 교수·학습 계획, 교수·학습 방법, 학교급별 내용 영역별 지도, 교수·학습 시설 및 기자재 등으로 구분하고, 그에 관련한 내용을 명료화·구체화하려고 하였다. 국악 내용에 대한 지도상의 안내를 위해 특별히 국악 지도에 대한 유의점을 포함하였다. 그것은 신체 표현 강조, 구음 지도 강조, 국악보 활용 강조 등에 대한 것이다. 평가는 구성 틀을 4가지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며, 과정을 중시하여 음악적 발달 및 태도 변화 등의 관찰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실기 평가, 자기 평가, 상호 평가, 포트폴리오, 모둠 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평가 방법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9) 미 술

미술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학교 미술 교육의 문화적 소양 능력으로 미적 인식 능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 미술 교육에 사회 문화적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학습자의 생활 속에서 시각 문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가 교

육과정의 현장과의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구체화와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넷째, 통합적인 미술 경험을 강조하도록 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미술 교육의 성격을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에 적합하게 보완하였다. 둘째, 미술과 목표에서 미적 인식 능력을 강조하고 학년급별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셋째, 미술 교육의 내용 체계는 제7차 교육과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며 각 영역별로 학습 요소를 보완하였다. 넷째,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항에 하위 항목을 구분하여 좀 더 구체화하였다.

(10) 영 어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현실에 적합한 수준별 수업 방안 구축과 교육과정 내용의 개선이었다. 수준별 수업과 관련하여 심화 내용을 삭제하여 기본 학습 내용만 제시하고 수준별 수업 관련 내용은 ‘교수·학습 방법’에서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내용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는 측면에서 학습 요소 간 연계성 및 위계성을 강화하고, 성취 기준의 난이도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수준을 조정하였다.

전체 목표 아래 초등학교와 중등 학교 목표를 분리하여 초등학교 영어 교육 목표 진술이 좀 더 명확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내용 체계에서는 언어 재료 중 문화 항목을 소재에 포함하였다. 학년별

신출 어휘 수는 3학년은 110 낱말, 4학년은 120 낱말, 5학년은 130 낱말, 6학년은 140 낱말 이내로 소폭 증가시켰다. 초등학교 기본 어휘(736개)와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도 수정·추가하였다.

또, 문자 언어 도입 시기를 조정하여 3학년 2학기 1학기 앞당겼고,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서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분리하여 초등학교의 수업 및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11) 통합 교과

초등학교 1, 2학년의 통합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격에서는 통합 교과의 근본 취지를 강조하고, 통합 교과의 교과별 특성,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보완하였다. 목표에서는 교과별 목표의 용어와 표현을 명료화하였다.

‘우리들은 1학년’의 성격 부분에서는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수정하고, 진술 방식에 있어서 다른 통합 교과 교육과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목표에서는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부 목표의 순서를 조정하고, 학교 생활 적응 지도에 초점을 두어 명료화하였다.


‘바른 생활’의 성격 부분에서는 통합 교과 성격의 명료화, 문장의 재진술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목표에서는 실천을 강조하였고, 하위 목표를 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진술하였으며 진술에 일관성을 기하였다.

‘슬기로운 생활’의 성격은 총론과 일관성 있게 기술하고 외국어식 표현을 수정하였으며,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였다. 목표의 진술 순서를 조정하고 일부 부정확한 표현을 바로잡아 목표 제시를 분명하게 하였다.

‘즐거운 생활’의 성격 부분에서는 용어의 통일, 문장의 재진술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목표에서

는 목표별로 달리 제시되었던 ‘놀이·표현 활동’, ‘감상 활동’, ‘놀이, 표현 및 감상 활동’을 ‘놀이와 활동’으로 통일하여 제시하였다.

이번에 고시된 새 교육과정은 2009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새 교육과정이 현장에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 교과서 개발 작업과 함께 교육과정 해설서를 발간·보급하고,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새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연수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새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개정된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면서 새 교육과정을 적용하고자 노력할 때 추구하는 교육 이념에 따른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알아본다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

글 박미현(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제 7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지 십여 년이 지났다. 그 세월이면 교육과정 변화의 폭이 작을 수 없다. 그 동안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문 공동체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반영해야 하고, 현장 교사 및 교직원 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비판의 목소리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까지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난 2월 28일 고시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사회의 다양한 요구 사항과 주5일 수업제 월2회 실시 등의 교육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에 의해 개정하였다.

울적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중심으로 감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재량 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 재량 활동에서 감축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별로 감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특별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천 중심의 다양한 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천한다는 제7차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 주요 개정 내용과 특징

중학교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철학과 기본 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 교과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다. 여기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중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수업 시수 일부 조정

현재 주5일 수업제가 월2회 실시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수업 시수를 연간 34시간 이내에서 자

(2)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의 반영

정부 부처, 관계 기관 등 국가·사회적으로 과학 교육, 역사 교육, 진로 교육, 논술 교육 강화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그 중 직·간접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요구들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였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사회적 요구를 각 교과에 반영하고, 범교과 영역을 확대하여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교과 영역은 그 동안 민주 시민 교육 등 16개 영역의 범교과 학습을 재량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지도하였던 기존의 영역에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

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 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의 19개 영역을 추가하여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했던 제7차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재량 활동을 중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였으며, 교과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과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여 중학교의 경우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주당 1시간인 교과과의 1, 2학기 주당 1시간씩의 수업을 1학기에서만 2시간을 편성하거나 1, 2학년에서 주당 1시간씩 수업을 1학년이나 2학년 때 2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집중 이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2. 교과별 개정 내용과 특징

중학교의 교과목은 국어, 도덕, 사회(역사),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 교과에서 역사(국사+세계사) 과목이 독립되었다. 과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회·문화적 변화를 교육 내용 및 내용 체계에 수용하고,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이 분량이 많고 수준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학년 간, 학교급 간, 교과(목) 간 교육 내용 연계 및 중복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다. 교과별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 어

교육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여섯 영역을 유지하였으나 제7차 교육과정의 학년별, 영역별 내용 항목 수를 6~7개에서 4~5개로 축소·제시함으로써, 심화 학습 및 창의적 학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다매체, 디지털 시대의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만화, 영화 및 드라마 등을 수업에서 다룰 수 있도록 매체 언어의 비판적 수용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보 전달 및 설득 등의 논술 관련 글을 전체 언어 자료의 절반 정도로 배치하여 3개 학년에 걸쳐 논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평가 방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주로 운영되었던 지필 검사를 포함하여 연구 보고서법, 면접법, 구술 시험 토론법, 관찰법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강구하여 국어 교육의 본질에 적합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영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사가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도 국어과 교육과정의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도 덕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도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기 위해 그 동안 덕목 중심으로 선정되었던 도덕과 교과 내용을 주제 중심으로 변경하였다. 학년별로 8~12개의 도덕적 주제 및 쟁점으로 교과 내용을 구성하여 학생 스스로 주제적 성찰과 실천을 강조하여 도덕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해석함에 있어 도덕적인 관점만이 아닌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7학년의 ‘4-나 환경 친화적 삶의 방식’이라는 단위에서는 ‘환경 윤리’라는 도덕적 관점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라는 차원에서 ‘경제학적 관점’ 및 지구 생태계의 유한성에 관한 ‘생물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학 교과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신장을 강조하기 위해 ‘성격’에 창의력, ‘목표’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에 창의성 관련 평가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학년별로 단위별 내용 진술에 필수 ‘탐구 활동’을 제시하고 수업 시수와 실험실 등 여건을 고려하여 탐구 활동은 필수 탐구 활동 중심으로 하여 최소한 선별해서 정하고, 나머지는 학교 여건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 회

사회 교과와 특성을 반영하여 실생활 경험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였으며, 학습 분량을 감축하여 대강화하였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시 필자들의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에서는 국사만 시수와 교과서가 분리되었으나, 이번에는 세계사도 분리하여 역사 과목으로 통합하였다. 성취 기준 수준은 중학교급에서는 351개 성취 기준을 199개로 감축하였다. 또, 학년별 내용에서 소주제명을 삭제하고 주제별로 내용을 정선함으로써 중복과 유사 개념, 난이도 면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학습량의 감축 효과를 가져왔다.

(4) 수 학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내용 영역명을 초등학교는 수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과 문제 해결로 중·고등학교는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확률과 통계, 기하로 차별화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10년간 교육 목표만 제시하던 방식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학 교육의 초점을 고려한 학교급별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 사실상 기본 과정처럼 가르치던 심화 과정을 대부분 삭제하고 학습 내용의 학년별 이동과 연계성 강화를 통해

학습량을 조절하였으며, 긴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습 요소를 과감하게 삭제하여 기본 개념의 학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의 심화 과정으로 다루던 임의의 두 실수 사이에 존재하는 실수를 찾는 방법을 삭제하고, 중학교 1학년에서는 ‘두 원의 위치 관계’를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동시켜 추가하였다. 중학교 2학년에서는 ‘근삿값의 덧셈과 뺄셈’을 삭제하고 증명은 약화시켰다. 이 밖에 수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순열과 조합의 기초 내용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동하였고, 국제 표준을 고려하여 부등호 기호를 변경하였다.

(5) 과 학

과학 교과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신장을 강조하기 위해 ‘성격’에 창의력, ‘목표’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에 창의성 관련 평가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학년별로 단위별 내용 진술에 필수 ‘탐구 활동’을 제시하고 수업 시수와 실험실 등 여건을 고려하여 탐구 활동은 필수 탐구 활동 중심으로 하여 최소한 선별해서 정하고, 나머지는 학교 여건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학생의 흥미와 창의력 제고 및 종합적 과학 탐구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매 학년별로 ‘자유 탐구’를 신설하였다.

과학 논술 지도를 위해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에 과학 독서 및 과학 글쓰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예를 들면, 과학 내용 및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도서를 읽고, 과학 글쓰기와 토론을 할 수 있게 수업을 계획하도록 하였다. 특히, 학생의 호기심과 흥미 유발을 위해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적절히 포함하여 학생의 흥미와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6) 기술·가정

기술·가정 교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관련 내용을 강화하였고, 개정된 정보 통신 기술(ICT) 지침을 반영하였다. 또, 아이디어 구상과 제품 만들기 등의 발명 교육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전통 음식과 기술, 가정 생활 문화의 전통 이해 교육을 반영하였다. 기술·가정과의 수업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 교수·학습 방법 중 ‘교수·학습 계획의 수립’에 팀티칭(team-teaching)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그 동안 가정 교사들이 기술을, 기술 교사들이 가정을 가르치기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하여 기술, 가정 분야의 주당 이수 시간을 7학년은 각각 1시간씩, 8학년은 가정 분야 2시간, 기술 분야 1시간, 9학년은 가정 분야 1시간, 기술 분야 2시간으로 명시하여 자기 전공을 살려 팀티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7) 체 육

‘운동 기능 중심 교육과정’에서 ‘신체 활동 가치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했다. 국가 수준에서 규정한 ‘필수 활동’과 ‘선택 활동’의 구분을 삭제하고 학년별 신체 활동을 예시로 제시하여 단위 학교 선택 기회를 확대했다. 체육 교과와 가장 큰 변화는 중등 학교의 평가 종목 수와 운동 기능 및 체력 평가 반영 비율 조항(70% 정도)을 삭제한 것이다. 내용 영역을 건강 활동, 도전 활동, 경쟁

활동, 표현 활동, 여가 활동으로 통일하여 학교급 간 연계 교육을 강화했다. 체육 교과와 주요 교육 내용인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내용을 통합하고 스포츠 심미성 교육, 비교 문화 교육 등을 강조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균형을 추구했다. 아울러 ‘체육 교육’과 ‘보건 교육’의 통합적 목표와 내용 영역(건강 활동)의 제시를 통한 효율적인 건강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 평가 내용과 방법의 확실성을 지양하기 위해 평가 내용에 따른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8) 음 악

문화 시대를 향유하는 국민의 핵심 역량으로 음악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를 수용하여 세계화 시대의 음악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음악의 순수 미적 의미 외에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음악의 가치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을 탐구하고,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음악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 세계의 다양한 음악 문화를 수용하고, 디지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음악도 포함했다. 아울러 학습할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였으며, ‘음악의 생활화’ 영역을 신설하여 수업 시간에 배운 활동이나 지식을 학생들의 개인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 속에서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국악 내용을 정선하고 체계화하여 학년별로 반영한 것도 특이할 만하다.

(9) 미 술

미술 교과와 생활 속의 시각 환경을 이해하고 사회적 소통 능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학교 미술 교육에 시각 문화에 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였다. 또, 기초 조형 언어 교육이 초등학교 단

계부터 철저하게 지도되도록 표현 영역의 목표와 내용을 선정하였다. 즉, 미술 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초·중·고등 학교의 연계성과 위계성을 고려한 학습 내용을 선정하였다. 문서의 체제는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체제를 따르고 있으나 영역별로 각 하부 항목을 제시하여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목표에서는 총괄 목표와 학년 군별로 구분하여 지도 중점 사항을 제시하였다. 내용 영역에서는 학교 미술 학습 경험과 지역 문화 공간을 연계할 수 있는 내용 요소를 선정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학습 계획’, ‘교수·학습 방법’, ‘내용 영역별 지도’ 항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평가는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내용 영역별 평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학습자의 능력과 관점에 따른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10) 영 어

총론의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단계형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별도로 제시되었던 심화 과정 성취 기준을 삭제 또는 이동하여 기본 과정 내용만 제시하였다. 수준별 수업 관련 내용은 ‘교수 학습 방법’에 제시하여, 수준별 수업의 학습 유형, 학습 활동, 집단 편성 등의 기본적 원칙만을 언급하였다. ‘목표’는 학교급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제시되었던 것을 초등학교와 중등 학교로 구분하고, 목표 진술이 좀 더 명확하도록 개선하였다. ‘성취 기준’은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는 측면에서 학습 요소 간 연계성 및 위계성을 강화하고, 표현 기능(말하기, 쓰기)의 난이도 수준을 학교 현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조정하였다.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 항목에서는 초등학교와 중등 학교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중등 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학년별 어휘 수를 소폭 조정하여, 7학년은 현행 200 낱말 내외에서 170 낱말 이내로, 8학년은 250 낱말 내외에서 280 낱말 이내로, 9학년에서는 350 낱말 내외에서 390 낱말 이내로 변경하였다. 7학년에서 신출 어휘 수를 줄인 것은 초등학교 6학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교급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고시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 1학년은 2010년, 2학년은 2011년, 3학년은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새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무리 없이 적용되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 해설서를 발간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서 개편 작업과 아울러 학부모가 알기 쉬운 홍보, 교원이 쉽게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새 교육과정에 애정을 갖고 적용하는 노력과 발전을 위한 비판이 병행될 때에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거듭나리라고 기대해 본다. **연**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알아본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

글 박상화(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1. 들어가는 말

초·중등 교육법상의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은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 교육을 하는 것’¹⁾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10개 기본 교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 2, 3학년에서는 학생의 진로,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의하여 기초적인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며,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고등학교 2, 3학년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재량 활동의 신설,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정보 능력의 배양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은 2002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이제 그 적용 기간이 5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 동안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주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우선,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 간의 분리가 지역, 학교, 학생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대학 입학과의 관련성’, ‘학습의 용이성’을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있어, 진로와 관련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또, 과정보다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2008학년도 대입 제도와 관련하여 내신 유효성에 따른 과목 간 편중 현상도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²⁾. 하지만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며, 시대 변화와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한 소폭 개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개정 배경 및 방향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 적용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그 동안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교육과정 내용에 반영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또, 지식 정보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 교육의 강화,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역사 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사 교육의 강화 등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과학 교육과 역사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 시수를 일부 조정하였다.
먼저, 지식 정보화 사회의 무한 경쟁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 기초 소양 교육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 수업 시수를
현재의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1시간 늘렸다.

을 반영할 필요성도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현행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나타난 수준별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과 교육과정상의 연계성 강화나 수준의 적정화, 시대 변화 반영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필요성도 증가하였다. 또, 월2회 주5일 수업제의 실시에 따른 수업 시수 감축 내용을 교육과정 문서에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이런 배경하에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주요한 개정 방향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의 반영,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개선, 교과별 교육 내용의 개선, 수업 시수 일부 조정이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었다.

3. 개정의 주요 특징

(1) 수업 시수 일부 조정

월2회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른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는 지난 2005학년도부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하여 수업 일수는 연간 수업 일수인 220일의 1/1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하고, 수업 시수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하고는 연간 34시간의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현행 연간 1,224시간(72단위)에서 연간 1,190시간(70단위)으로 감축하고, 고등학교 2, 3학년에서는 기존의 136단위에서 4단위 감축한 132단위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만, 현재 일부 학교에서 재량·특별 활동 위주로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성 교육이 약화되고, 학교에서의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실천 중심의 다양한 체험 교육을 통한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 함양이라는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한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교과 이수 시간에서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과학 교육과 역사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 시수를 일부 조정하였다. 먼저, 지식 정보화 사회의 무한 경쟁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 기초 소양 교육³⁾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 수업 시수를 현재의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1시간 늘렸다. 또,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역사 의식 제고⁴⁾를 위하여 고등학교 1학년의 역사 과목 수업 시수를 현재의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늘렸다. 과학과 역사 시간은 교과의 심화 보충 학습을 위한 교과 재량 활동 시간을 감축하여 증대시켰다.

(4) 선택 과목 조정

선택 과목의 효율적 운영과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통 교과 선택 과목을 폐지, 신설, 통합, 분리하는 등의 조정을 하였다.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수능 미반영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어 생활’, ‘인간 사회와 환경’, ‘생활과 과학’ 과목은 폐지하였다. 한편, 다매체 디지털 시대의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체 언어’를 신설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교류 및 평화 번영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사’를 신설하였다. 또, 수학과에서는 선택 과목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의 연계

성을 고려하고, 선택 과목 간 내용의 재구조화를 통하여 선택 과목을 조정하였다. 외국어(영어)과와 한문과에서는 기존의 과목 내용을 통합하여 위계성 및 계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목을 분리하였다. 이 밖에도 ‘생물’을 ‘생명 과학’으로, ‘정보 사회와 컴퓨터’를 ‘정보’로, ‘철학’을 ‘생활과 철학’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과목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아울러, 선택 과목에 따라 4, 6, 8단위로 다양하게 운영되던 단위 수를 6단위로 조정하고, 교양 등 일부 과목만 4단위로 하여, 선택 과목의 편성·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표 3】 교과별 선택 과목 개정 내용 비교

과목	현 행	개 정	과목 수 변화	총 기준 단위 수 변화
국어	국어 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 언어	6 → 6	36 → 30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현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3 → 3	12 → 18
사회	인간 사회와 환경,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문화, 세계 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10 → 10	70 → 60
수학	실용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 수학	수학의 활용,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6 → 6	32 → 36
과학	생활과 과학,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 과학 I,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 과학 II	물리 I, 화학 I, 생명 과학 I, 지구 과학 I, 물리 II, 화학 II, 생명 과학 II, 지구 과학 II	9 → 8	44 → 48
기술 가정	정보 사회와 컴퓨터, 농업 과학, 공업 기술, 기업 경영, 해양 과학, 가정 과학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보	6 → 6	34 → 36
체육	체육과 건강, 체육 이론, 체육 실기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3 → 3	12 → 14
음악	음악과 생활, 음악 이론, 음악 실기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3 → 3	12 → 14
미술	미술과 생활, 미술 이론, 미술 실기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실기	3 → 3	12 → 14

과목	현행	개정	과목 수 변화	총 기준 단위 수 변화
외국어	영어 I, 영어 II, 영어 회화, 영어 독해, 영어 작문	영어 I, 영어 II,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5 → 6 (영어)	40 → 36 (영어)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I, 중국어 II, 일본어 II, 러시아어 II, 아랍어 II	독일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 스페인어 II, 중국어 I, 중국어 II, 일본어 I, 일본어 II, 러시아어 I, 러시아어 II, 아랍어 I, 아랍어 II	14 → 14 (독일어 등)	84 → 84 (독일어 등)
한문	한문, 한문 고전	한문 I, 한문 II	2 → 2	12 → 12
교련*	교련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 경제, 안전과 건강, 진로와 직업, 환경	10 → 9	48 → 36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 경제, 종교,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 기타			
과목 수	80	79	80 → 79	448 → 438

* 교련 교과는 ‘안전과 건강’ 과목으로 변경됨.

(5) 선택 과목 신설 개설 자율권 확대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과 관련하여 철학, 논리학 등의 교양 교과에서 심화 선택 과목이 필요한 경우 전문 교과의 과목을 선택하여 개설하거나,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선택 중심 교육과정 보통 교과의 모든 교과에 있어 시·도 교육감의 승인하에 선택 과목을 신설하거나 전문 교과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이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한 교육 내용의 대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입시 위주의 과목 신설, 교과 간 또는 과목 간 갈등 초래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시·도 교육감의 승인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다.

(6) 선택 과목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고, 이수 단위가 4단위인 과목은 증배 운영만이 가능하였다. 다만, 실업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4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확대 적용하여 2~4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다만, 보통 교과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준 단위가 4단위인 과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증배 운영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유지하였다.

(7)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 선택권 강화

보통 교과 선택 과목과 관련하여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선택 비율에 대한 최대값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동안 시·도 교육청 지침이나 연수 자료 등을 통하여 권장하였던 최소 단위 수

등을 고려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선택 비율이 전체 132단위 중에서 28단위 이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50%로 제시하였던 최대치는 삭제하였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8) 교과 집중 이수제 도입

집중 이수를 통한 학습 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수업 운영을 위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교과 집중 이수제를 도입함으로써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 2학기에 주당 각 1시간인 교과외의 경우 1학기 또는 2학기에 주당 2시간으로 편성하여 집중 운영할 수 있고, 각 학년별로 주당 1~2시간인 교과외의 경우에도 한 학년에서 주당 2~3시간으로 집중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4. 맺음말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정도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그리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한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생의 선택권 강화, 선택 과목군 및 선택 과목 조정 등은 앞으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0.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
- 박순경 허경철 이광우 외 3인, 교육과정 개정 관련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 연구 보고 CRC 2004-4-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박순경, 허경철, 이광우 외 7인,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2006년도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탁 과제 답신 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 1) 초·중등 교육법 제45조
- 2)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박순경, 2006.).
- 3) '국가 기술 혁신 체계(NIS) 구축 방안' (2004. 7.)에서 초·중등 과학 교육 혁신을 국정 과제로 추진
- 4) 역사 교육 강화에 대한 지지는 90.3%(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2006. 9. 23.)
- 5) 선택 과목의 일원화에 대한 찬성 비율은 83.4%(박순경 외, 2004.)
- 6) 이수 비율이 낮은 교과(2006): 기술·가정 교과(94.1%), 음악 교과(23.6%), 미술 교과(22.9%)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알아본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

글 박형규(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1. 들어가는 말 - 배경과 방향

우수한 산업 인력의 양성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우리 나라가 부존 자원 하나 없는 상황에서도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된 인력 양성 때문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산업 인력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실업계 고등학교일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는 산업 사회 패러다임의 관성 속에 지금도 산업계에 필요한 우수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되어 2002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에 연차적으로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은, 2004년도에 3학년까지 전면적으로 적용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며, 지역 및 학교의 특성과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고등 교육 기관, 직업 훈련 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산업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과 단위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이용순·이병욱, 2005.). 또, 최근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산학 일치형 교육과정의 개발, 과학 기술

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 직업 기초 능력의 강화 등에 대해 국가·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요구가 대두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의 농업 계열, 공업

계열, 상업 계열, 수산·해운 계열, 가사·실업 계열 등 5개 분야로 구분된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은, 각 계열에 설치된 학과의 성격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전문성 확보 미흡, 고등 교육 기관 및 자격 제도 등과의 연계성 미흡, 이에 따라 학과 편제도 개편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현장 적합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업 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해 온 실업계 고등학교는 평생 직업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의 함양, 직업 세계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다양한 직업적 경험 제공 등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미래 산업의 변화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체제로 변신해야 한다고 볼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교육과정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이러한 현실과 변화와 미래 예측을 반영하여 계열별 전문 교과를 신설, 통폐합하고 교육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각 계열의 명칭, 각 계열의 기준 학과 편제, 그리고 계열별 전문 교과의 편제 등을 포함한 실업계 고

점점 비중 있는 미래 산업으로서 역할이 주목되는
생명과 환경 분야를 포괄하기 위해 농업 계열은 농생명 산업 계열로 변경하였고,
정보 통신 분야를 포괄하기 위해 상업 계열은 상업 정보 계열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업 계열, 수산·해운 계열, 가사·실업 계열은 현행 명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등학교 교육과정의 전반적 개정을 목표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2. 주요 개정 내용과 특징

2007년 교육과정 개정은 현행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상황을 현실화하고, 사회·문화적 변화와 직업 세계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미래 산업의 변화와 인력 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각 계열의 명칭, 각 계열의 기준 학과 편제, 그리고 계열별 전문 교과의 편제 등을 포함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최저 이수 단위 조정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목 편성의 재량권 확대를 위해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최저 이수 단위를 각각 82단위에서 80단위로 2단위씩 감소하여 설정하였다. 이는 현재 월 2회 실시하고 있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감소된 단위수가 2, 3학년에서 4단위인 점을 감안하여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에서 각각 2단위 줄인 결과이다.

(2) 교과 편성 운영 지침

교과 편성 운영 지침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부여된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현행 교육과정과 동일하다. 단,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종합 고등학교나 통합형 고등학교 등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의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3) 각 계열의 명칭, 성격 및 목표

학교 현장, 산업 현장, 관련 분야의 미래 지향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5개 계열을 유지하면서 일부 계열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점점 비중 있는 미래 산업으로서 역할이 주목되는 생명과 환경 분야를 포괄하기 위해 농업 계열은 농생명 산업 계열로 변경하였고, 정보 통신 분야를 포괄하기 위해 상업 계열은 상업 정보 계열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업 계열, 수산·해운 계열, 가사·실업 계열은 현행 명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계열별로 새롭게 부각된 특성, 직업 세계의 변화, 사회 가치관의 변화, 이에 따른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각 계열의 성격과 목표를 수정·보완하였다.

(4) 각 계열 기준 학과의 편제

기준 학과 편제는 계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

만 계열별 특성을 살리고 사회의 변화와 산업계·학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명칭 변경 또는 폐지하였고 앞으로 필요성이 있는 학과를 신설하였다. 그 결과 농생명 산업 계열 9개, 공업 계열 22개, 상업 정보 계열 7개, 수산·해운 계열 12개, 가사·실업 계열 8개 등 총 58개 학과가 선정되었는데, 총 기준 학과 수의 측면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의 학과 수와 동일하다. 그러나 계열별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농생명 산업 계열은 식물 자원과와 농업 경영과를 식물 자원과로 통합하고, 농산물 유통과는 농산물 유통 정보과로, 환경 보전과는 환경·관광 농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계열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물 공학과를 신설함으로써 총 기준 학과 수는 현행과 같이 9개로 같지만 내용은 변화를 주었다. 공업 계열은 상업 정보 계열의 시각 디자인과를 가져와 산업 디자인과와 통합하여 디자인과로 만들었고, 금속과는 금속 재료과로, 통신과는 정보 통신과로, 전자 계산기과는 컴퓨터 응용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자원과는 폐지하였다. 컴퓨터 게임과와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 제작과는 신설하여 총 기준 학과 수는 현행보다 2개가 증가된 22개로 하였다. 상업 정보 계열은 정보 처리과와 사무 자동화과는 통합하였고, 통상 정보

과는 무역 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비서과는 폐지하였다. 시각 디자인과와 관광 경영과는 이관하였고, 전자 상거래과와 멀티미디어과는 신설하여 총 기준 학과 수가 현행보다 2개가 감소된 7개가 되었다. 수산·해운 계열은 어업과가 해양 생산과로, 냉동 기계과가 냉동 공조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수산물 유통과, 해양 토목과, 선박 운항과는 폐지하였다. 해양 레저과, 항만 물류과, 해양 정보과 등 3개 학과는 신설하여 총 기준 학과 수는 현행과 같이 12개로 유지하였다. 가사·실업 계열은 상업 정보 계열에서 넘어온 관광 경영과를 관광과로 통합하였고, 자수과는 의상과로 폐합하고, 노인 복지 간호과는 간호과와 복지 서비스과로 분리 개정하여 총 기준 학과 수는 현행과 같이 8개이다. 그리고 교과마다 두었던 기타 학과는 삭제하였다.

(5) 각 계열 전문 교과 의 편제

농생명 산업 계열의 전문 교과 편제는 현행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관련 산업 분야의 변화 추세를 고려하고 일부 통합 조정 및 신설된 기준 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폭 조정하였다. 농생명 산업 계열 전문 교과 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
○ 축산	○ 동물 자원
○ 유통 관리 I, II	○ 농산물 유통 관리 I, II
○ 감사 기술	폐지
신설	○ 농업과 관광

공업 계열은 전문 교과목의 성격과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 교과목, 기초 전문 교과목, 응용 전문 교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공업 계열 교과 편제는 관련 산업의 발전 및 변화를

반영하고, 학과의 명칭 변경 및 신설된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교과목을 신설 또는 통폐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공업 계열 전문 교과 의 자세한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
○ 금속 재료	○ 재료 일반
○ 정보 통신	○ 정보 통신 실무
○ 건축 시공 I	○ 건축 목공
○ 건축 시공 II	○ 건축 시공 I
○ 건축 시공 III	○ 건축 시공 II
○ 시각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이관(상업 계열)
○ 단위 조작과 화공 계측 제어	○ 단위 조작·공정 제어(통합)
신설	○ 화학 분석
○ 뉴 세라믹	○ 기능성 세라믹
○ 고온 세라믹	○ 구조 세라믹
○ 응결·경화 세라믹과 용융 세라믹	○ 세라믹 디자인(통합)
○ 식품 공업 I	○ 식품 분석
○ 식품 공업 II	○ 식품 공업 기술
○ 인쇄 재료	○ 사진·인쇄 재료
○ 사진 기술	○ 사진(상업 계열의 사진과 통합)
○ 자동차 전기	○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 선박 의장	선박 건조로 폐합
○ 자원 개발, 화약 발파, 석재 가공, 시추·지하수, 자원 개발 조성, 자원 개발 기계	폐지
신설	○ 광 통신 실무
신설	○ 영화·방송 제작, 촬영 조명, 방송 시스템 기초
신설	○ 게임 기획, 게임 프로그램, 게임 그래픽
신설	○ 만화·애니메이션 기초, 애니메이션 제작, 만화 창작
신설	○ 로봇 기초, 로봇 제작

상업 정보 계열의 전문 교과목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대로 기초 이론 교과, 실무 기본 교과, 실무 심화 교과의 3개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한다. 따라서, 모든 전문 교과는 이론과 실무가 통

합된 교과목의 성격을 지니며, 실무 심화 교과에서 규정한 전공 영역 실습은 교과목의 내용 구성에 반영하도록 한다. 현행과 달라지는 상업 정보 계열의 자세한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
○ 경영 개요	○ 기업과 경영
○ 상업 법규	○ 경영과 법
○ 회계 실무	○ 전산 회계
○ 세무 회계	○ 세무 회계
○ 국제 상무	○ 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
○ 국제 경영	○ 국제화와 기업 경영
○ 경영 실무	○ 기업 자원 관리(ERP)
○ 마케팅, 광고 일반	○ 광고와 마케팅
○ 비서 일반, 비서 실무	○ 비서 실무
○ 사무 자동화 일반, 사무 자동화 실무, 문서 실무	○ 사무 관리 실무
○ 유통 관리 일반, 유통 정보 실무	○ 유통 정보 관리
○ 상업 계산 실무, 그래픽 디자인	폐지
○ 시각 디자인 일반, 시각 디자인 실무, 그래픽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사진	공업 계열로 이관
○ 관광 경영 실무	가사·실업 계열로 이관
공업 계열에서 이관	○ 멀티미디어 일반
신설	○ 금융과 생활, 물류 관리,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 쇼핑 물 관리, 전자 상거래 일반, 전자 상거래 실무, 웹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시나리오, 멀티미디어 디자인, 창업 일반, 경영 정보 시스템

수산·해운 계열의 경우, 현행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안 모두 계열 필수 과목 4개와 선택 과목 29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기준

학과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문 교과와 과목을 수정하였다. 수산·해운 계열의 자세한 변동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
○ 어업	○ 해양 생산 기술
○ 수산 가공 기계	수산 가공에 폐합
○ 수산물 판매 관리	수산물 유통에 폐합
○ 해양 토목, 해양 구조물 설계·시공	폐지
신설	○ 생선회 실무
신설	○ 해양 레저 관광
신설	○ 항만 물류 일반
신설	○ 해양 정보 관리

현행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 해소 및 현장의 교육 상황을 현실화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계열의 명칭, 성격, 목표를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기존 학과와 과목을 명칭과 내용에 있어 수정·보완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과정 개정 틀을 지키려고 하였다.

가사·실업 계열의 경우, 현행 교육과정의 과목들 중 학과 폐지 및 분리 독립에 따른 폐합 3개와 폐지 1개, 1개 학과의 분리 및 신설, 전문 분야의 확대 등에 따른 8개 과목의 신설, 학과 명칭 변경

에 따른 과목 명칭 변경 3개, 기존 학과의 계열 정리에 따른 1개 과목의 계열 이동 등 총 36개 과목으로 편제되었다. 가사·실업 계열의 자세한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
○ 한국 무늬, 편물, 자수	○ 자수와 편물(폐합 및 통합, 명칭 변경)
○ 홈 패션	폐지
○ 유아 교육 원리, 유아 생활 교육, 유아 놀이·표현 지도	○ 영유아 교육 원리,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영유아 놀이 교육, 영유아 생활 지도
신설	○ 간호의 기초, 보건 간호, 기초 간호 임상 실무
신설	○ 기초 복지 서비스
신설	○ 관광 서비스 실무, 관광 중국어
○ 관광 조리	○ 관광 외식·조리
신설	○ 메이크업
○ 외국 조리	○ 동양 조리, 서양 조리(분리 신설)

3. 총론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나타난 실업계 고등학교 관련 내용 비교


총론의 내용 중 운영 지침에 나타난 실업계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개정된 부분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현 행	개 정
3.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Ⅲ.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1. 편 제 (나) 전문 교과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한다. 【표 3】	(나) 전문 교과는 <u>농생명 산업</u> , 공업, 상업 정보, 【표 3】

2007. 4. 1. 『교과서연구』 제50호

4. 나가는 말

2007년 교육과정 개정은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기본 철학 및 체제는 유지하면서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교육 내용 및 체계의 개편 필요성과, 다양한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 해소 및 현장의 교육 상황을 현실화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계열의 명칭, 성격, 목표를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기존 학과와 과목을 명칭과 내용에 있어 수정·보완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과정 개정 틀을 지키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겉으로 보기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고, 직업 세계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모색을 통해 일부 계열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성격과 목표도 대폭 손질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한 기존 학과와 관련 교과목의 변화, 이에 따라 과목의 내용도 신지식이나 기술을 크게 반영한 부분은 이번 개정의 큰 특징이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교과서 개발 전까지 다루어질 편찬상의 유의점이나 교육과정 해설서를 통해 점차 보완할 것이며,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충실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진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개발은 2009년부터 전문 기초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에 마무리된다. 아무쪼록 개발 과정에서 유래 없이 많은 현장 검토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반영한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앞날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문 제 2007-79호, 2007.
- 이용순·이병욱.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 이용순 외. 『실업계 전문 교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 허정철 외.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개인차를 고려한 자기 주도적 학습 교과서(수학) 시험 적용 사례



글 최대위(양구여자고등학교 교감)

1. 들어가는 말

학습자 중심, 학교 중심 교육 과정을 지향하는 현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는 단계형, 심화·보충형 교육 과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최대한 달리함으로써 다양하면서도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학습과 수준별 학습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는 개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한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해 도전감과 의욕을 상실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학습 결손이 누적되고,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상실하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현실은 교실의 붕괴, 수학 능력의 부족, 전문성 결여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의 횡행으로 인하여 사교육비의 지출은 늘어나고, 이는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시행이 장려되는 수준별 이동 수업은 이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준별 이동 수업은 10여 년 전에 이미 실시된 바 있으나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적용되어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과서나 학습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서 교사들의 부담만 늘어가고 있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월성 교육 종합 대책 등이 발표되고 그 일환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10-가 단계의 교과서가 3수준(기본, 표준, 발전)으로 개발되어, 2006년 6월 1일 실험용으로 발행되었다.

우리 학교는 편찬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10-가 단계의 교과서 3수준(기본, 표준, 발전)을 수준별 이동 수업 학급을 편성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시험 적용하였다.

2. 교과서 적용의 목적

수준별 이동 수업 학급을 편성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10-가 단계의 교과서 3수준(기본, 표준, 발전)으로 수업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 여부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적용으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
- ② 개발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의 현장 적합성 검사를 통한 효과성 검증
- ③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적용 후 차기 교과서 개편시 반영을 위한 시사점 도출

3. 적용의 실제적 방법

(1) 교과서 적용 수준별 이동 학급 편성

수준별 이동 학습을 위하여 지필 평가 성적과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학급을 편성하고, 학생의 성적과 희망이 다를 경우 교과 담임이 학생, 학부모와의 상담 후 학생의 희망과 수용 인원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준별 학급을 배정하였다.

(2) 교과서 체제 구성의 특징 및 장점 분석

- 3수준으로 구분하여 교과서가 따로 구성되어 있다.
- 기본편에서는 귀납적인 접근을 강조하였고, 표준편에서는 다양한 문제의 경험, 발전편에서는 개념의 활용 등에 중점을 두어 각 수준을 차별화하였고, 수업 방식에서의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
-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본문을 전개함으로써 학습 동기와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4. 적용의 결과

수학 교과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실험 적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준별 이동 수업에서 수준별 교과서의 효과

준비 학습 코너, 탐구 활동, 탐구 활동과 본문의 매끄러운 연결, 탐구 활동의 수준, 예제의 수준, 예제 후의 문제 등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다루어진 문제들의 소재가 남성 위주의 문제라는 면이나 통계 부분에서 정규 분포 형태의 예가 적었다는 것 등은 수준별 교과서의 효과를 보이기에 조금 아쉬움으로 남게 된다.

교사의 자료 준비 측면에서도 부담이 매우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다른 동기 유발이나 준비 자료 없이도 수업을 진행하기 수월하게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반에서는 같은 내용의 단순한 예제의 반복이 학생들에게는 좀 지루한 면이, 표준반과 발전반에서는 긴 내용의 탐구 활동이나 다소 분량이 많은 듯한 문제들이 있다는 면이 줄어든 자료 준비 측면에 반해 수업 진행 시간에 약간 힘겨운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 교과서(익힘책)를 제작하고 활용하였다. 보조 교과서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내용으로는 교과서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자세한 설명이나 경직된 수학 과목에 대한 부드러운 접근이 예상되는 수학 이야기 등이 설문 조사 결과 나왔는데, 사실 평가를 예상해서 평가의 기준이나 척도가 될 만한 내용이나 문제 위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수업 시수가 부족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수학 재량 시간을 활용하여 익힘책을 활용하였는데, 그것을 평가에 많이 반영하였고, 그 결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본반 학생들과 표준반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두드러진 것과 발전반 학생들의 전체적인 성적 향상과 함께 최상위권 학생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

었다.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좋은 효과를 얻었는데, 이는 교사들과 학생들 간의 유기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2) 색도 및 편집·구성 등에 있어서 학생 호감도

기존 교과서에 비해 매우 돋보이는 면이 바로 색도 및 편집 부분이었다. 학생들에게서도 매우 좋은 호감을 얻었는데, 각 고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에서도 색도와 편집 부분에서 시각적인 효과가 매우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수학과 교과서의 발전 방향

예전과 다르게 수학 교과서에서도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시키고 논리적인 전개를 구체화할 수 있는 활동을 매우 강조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방향도 점점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관과 논리를 통한 유추, 추론 등의 수학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면서 현실성, 시대성, 창의성을 포함할 수 있는 예를 많이 제시하여 다양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고 수학적 힘을 기를 수 있는 교과서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러 교사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러한 궁극적인 수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충분한 수학적 지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공감대 형성, 그것으로 인한 수학으로의 능동적인 태도 형성—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교사들의 자세와 자질을 갖추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겠다.

5. 나가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수학 교과서를 수준별 이동 수업에 적용한 후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더욱 현실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체제에 따른 문제점

- ① 수준별 수업의 가장 큰 부담은 바로 교사의 수업에 대한 교재 연구 준비이다. 타 교과에 비해 각 교과서마다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수학 교과에서는 교사 1인당 3~4교과서를 학습 준비하기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학 교사의 수업 부담은 늘 있어 왔지만 특별히 논의된 적이 거의 없었을 뿐더러 교사들 간의 형평성 문제 등에 의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준별 수업이 정착되려면 수학 교과에 대한 수업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 1인당 같은 수준의 교과서를 담당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 ② 수준별 학급 간의 진도의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다. 수준별 수업의 기본 방향 중의 하나가 동진도 이심도인데 이에 대해 매우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상위 수준으로 갈수록 속진의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는 각 수준의 교사들 간의 활발한 교과 협의 활동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 ③ 기본 교과서의 보조 교과서에 의한 수업 시수 부족이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아 기본 교과서만으

로도 수업 시수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보조 교과서의 도입이 추가된다면 더 많은 시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교육과정의 조절이나 방과 후 교육 등을 활용하는 등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수준별 이동 수업에 따른 문제점

- ① 본인 희망을 우선 고려하는 반편성이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도 실력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수준을 낮게 보고 낮은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급의 분위기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자신의 수준을 우선 고려하지 않고 친한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기본반이든 표준반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한 시간을 친한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희망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철저한 분석과 본인과 부모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반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② 생활 지도의 어려움이다. 학생들의 원만한 수업 진행과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 지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생활 지도를 제대로 하려면 학급 담임이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게 당연한데, 수준별 반편성을 하면 자신의 반 학생들 중 상당수의 학생들을 교과 시간에 한 번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그것은 곧 교과에 대한 불성실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학년말에 그 학생에 대한 의견을 기록할 자료 또한 전무하게 될 것이다. 점점 생활 지도가 어려워지는 요즘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③ 교사 인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이다. 요즘 전국적으로 교사 1인당 평균 수업 시수를 계산하여 교사 수가 평균을 초과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획일적으로 교사를 줄여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학급이나 농 어촌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방의 학교에게는 실제로 상치 과목 등 파행 운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수학 교사의 인원 또한 줄어든다면 수준별 이동 수업의 운영은 또 실패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규 교사의 인원 확보는 수준별 이동 수업에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 수학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어 이를 업무 분장 내에 포함시킨다든지 행정 업무 보조 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 편찬상의 과제



글 김만곤(용인 성북초등학교 교장)

1.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과제

지난 2월 28일, 제7차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종전의 일시-전면 개정에 따른 현장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수시 개정 체제 도입에 의해 개정이 이루어진 점, 총론과 각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동시 개정된 점,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교원과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개정의 의의로 들고 있다. 그 밖에도 이번의 교육과정 개정은 그 과정에서 장관이 직접 교육과정 개정은 ‘권력 투쟁’이라고 언급할 만큼 관련 집단 간의 갈등이 심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을 정교하게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분명한 과제를 인식하게 된 점도 중요한 의의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와 과제보다 현실적으로는 다시 전 교과서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이 2000년 3월에 초등학교 12학년 부터 적용되었으므로 개정 교육과정이 2009년 3월에 초등학교 12학년 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면

현행 교과서가 9년에 걸쳐 장기간 사용되어 새로운 교육 내용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러한 관점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생산적·효율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현행 교과서와 교과서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과제를 요약해 보고, 새 교과서 편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과서의 성격과 이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교과서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현행 교과서와 교과서 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과제

현행 교과서 및 교과서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러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인식도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현행 교과서는 거듭된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의 전달에 치우쳐 있다는 점, ‘한국 근현대사’나 ‘경제’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 이념이나 견해차에 따른 갈등이 극심하다는 점, 사소한 것 같으나 사회적으로는 크게 부각되고 있는 내용이나 표현상의 오류 문제 등이 교과서 자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이라면 국정 교과서의 유지와 검·인정 교과서

의 확대 또는 자유 발행제 도입에 대한 논의, 디지털 교과서의 연구 및 도입 문제 등은 교과서 제도상의 대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식 중심 교과서에 대한 비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 동안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금과옥조형 교과서’,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지적 영역 중심의 교과서’가 ‘전통적 교과서관’에 의한 교과서라면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인 교과서’,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기능 태도 영역에 유의하고 창의력, 사고력을 배양하는 교과서’가 ‘바람직한 교과서관’에 의한 교과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이나 학자들은 새로운 교과서가 나올 때마다 이러한 교과서가 편찬되었다는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교과서가 외형 체제의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변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 교과서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홍용선(1982)이 “교과서를 지나치게 경전화(經典化)하는 한국적 현실은 이제 반성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교과서를 답보적 수준에 머물게 한 주요한 이유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듯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 영역 편중 경향이 지적되어 온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지식 주입식 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 표와 같은 오래 전의 문교부(1987) 편수 업무연수 자료를 오늘날에 분석해 보아도 ‘과연 우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오히려 아직도 교육 내용이나 교과서를 보는 눈이 구태의연한 그 관점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다.

【표】 교육과정(교육 내용)을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지는 교과서의 2가지 모습

<p>교육 내용을 보는 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는 반드시 일정한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켜야 한다. ·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 내용은 가장 옳고 바른 것들이다. ·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 내용은 누구나 일률적으로 습득해야 할 대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 내용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이다. · 교육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신장됨에 따라 새롭게 수정될 수 있다.
<p>교과서의 모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 교과서 제작과 보급은 엄격한 관리의 대상이 된다. ·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교과서는 교육 내용과 동일시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을 위한 가능한 자료 중의 하나인 성격을 갖는다. ·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자료도 필요하다. · 다양한 사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자료 또는 도구의 모습을 보인다. · 교과서가 곧 교육과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관점의 차이에 따른 편향성 논란

교과서 검정 기준은 교과서 편찬의 기준으로, 교과서 저자들은 이 기준에 따라 교과서 집필 및 편찬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검정 기준에 위배된 교과서가 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은 바로 관점의 차이에 따른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하여 격렬한 갈등 상황을 보여 준 ‘한국 근 현대사’ 및 ‘경제’ 교과서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교과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검정 기준 중 공통 기준에 위배되거나 분명한 오류가 수없이 지적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교과서의 내용이나 표현상의 오류는, 그 교과서의 거의 모든 면이 바람직한 교과서에 가깝고 비록 매우 단순한 오류라고 하더라도 그 교과서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만다.

즉, 아무리 내용이 좋은 교과서라 할지라도 그 교과서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언론은 당장 ‘엉터리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교과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교과서가 되고 만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해당 교과목의 검정 기준 강화, 출판사와 관련 기관 단체 간의 협의체 구성 운영, 검정 심의 강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구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학설과 견해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집필상의 유의점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3) 내용이나 표현상의 오류 문제

교과서의 내용이나 표현상의 오류는, 그 교과서의 거의 모든 면이 바람직한 교과서에 가깝고 비록 매우 단순한 오류라고 하더라도 그 교과서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만다. 즉, 아무리 내용이 좋은 교과서라 할지라도 그 교과서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언론은 당장 ‘엉터리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교과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교과서가 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오류 수정 보완 실태를 살펴보면, 해마다 다루어지고 있는 오류 지적 사례는 엄청난 양이며, 그 시비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그것도 근본적인 치유책도 없이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교과서가 개편될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편수 행정은 편수관이 교과서 문장 하나 하나를 검토하던 옛날의 향수에 젖어 있을 만큼 한 가지도 않거니와 1인당 평균 100여 권이 할당되어 있다는 것은 그 교과서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라

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책 결정을 제대로 하고 오류를 찾는 작업 같은 것은 정부 기구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논리의 당위성을 보여 준다. 일본의 편수 제도에서 교과서 조사관의 역할을 이야기하며 편수 담당자 수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일본은 교과서의 오류는 전적으로 출판사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인 나라이며, 교과서의 오류로 정부가 부담을 갖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교과서의 오류 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 자체가 우리보다 정교하며, 일부 국정 도서가 있지만 우리처럼 검 인정화해도 좋을 교과목을 국정으로 유지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고 교과서의 오류 처리를 출판사의 노력에만 맡겨 둘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것은 출판사는 출판사대로 교과서 검정시의 편집진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해당 조항이 미흡하여 연구 집필진을 동원하여 오류를 바로잡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4) 교과서 발행 제도 문제

우리는 그 동안 국정 교과서와 검 인정 교과서, 자유 발행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왔으며, 그러한 논의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국정 교과서는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고 검 인정 교과서를 확대하며 점차 자유 발행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과서 제도는 국정 교과서에서 검 인정

교과서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정을 통과하는 교과서 수를 무제한으로 늘린 결과 한정된 교과목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교과서 종류만 늘어나고 있을 뿐 검 인정화한 교과목 수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다.

또, 논의 과정에서는 국정 교과서는 지역 사회나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렵고, 학생들의 욕구를 수용하고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 체계가 필요하며, 그러한 관점에서는 현재 국정 교과서로 되어 있는 중등 학교 도덕, 국어, 국사 교과서를 당장 검정화하고 초등학교 교과서도 전체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데 무리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검 인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지만 의식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국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국정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로 바꾸자면 예산이나 이념 문제, 교육 내용의 통일성 확보, 검 인정 제도상의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무력화시키는 경향도 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조사한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 제도를 보아도 국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온갖 비난에 대하여 구구한 설명으로 대응해 온 국정 교과서가 과연 2010년대 이후에도 수용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여론 수렴 과정에서는, 국정 교과서 발행권을 가지지 못한 출판사의 검 인정화 주장을 불평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국정 교과서와 관련된 출판사측이 국정제의 단점을 이야기할 리가 있겠는가 하는 점도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하며, 국정 교과서와 검 인정 교과서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가 신뢰도가 있는 조사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 국 검 인정제 구분을 결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위직이 단기간 그 직위에 있으면서 정책 결정에 따른 갖가지 부담을 쉽게 수용하겠

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며, 정책 변경에 대한 소인이 없이는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 충분한 논리로서 결정을 보좌해야 한다.

(5) 디지털 교과서 연구 및 도입 문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최근 멀티미디어 요소로 표현된 교과 내용과 참고서, 문제집, 학습 사전, 공책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유 무선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교과서(Digital Textbook) 상용화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초등학교 5, 6학년 전 과목, 중학교 1학년 3과목, 고등학교 1학년 2과목의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00개 학교에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습 단말기를 개발하는 등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6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발표에 대하여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확실한 투자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로 예산 문제나 활동성이 강한 학생들을 컴퓨터 앞에 붙잡아둘 때의 폐해 등을 들어 그야말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일부 교과서 전문 출판사 직원들은 “그러면 서책 중심의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는 사양길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우울해하기도 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미디어의 발전을 들어 단말기를 개발하는 정책은 실패하게 마련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 사업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기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실제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사업이 이러한 비판들을 폭넓게 수용하여 추진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학습 자료(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느냐 단말기(하드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느냐와 디지털 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하느냐 보완하느냐의



우리는 그 동안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강변해도
 시험 기간만 되면 드러나고 마는, 암기 위주의 교과서, 가치 주입식 교과서를 만들어 왔다.
 이번에는 기필코 이 전통을 탈피해야 한다. 암기 위주의 교과서를 만들면
 학생들을 붙잡아 두기에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이다.



관점은 이 사업의 추진 방향 정립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빌 게이츠(1995)가 “교실 수업은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속제는 가급적 많은 전자 문서를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나 “멀티미디어 문서는 지금의 교과서, 영화, 시험, 그 밖의 교육 자료가 맡고 있는 역할들을 일부 떠맡을 것이며 정보 기술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 점 등을 분석하여 이 사업을 내용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 중 어느 쪽이 주도하도록 할 것인가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새 교과서 편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제

이상에서 현행 교과서와 교과서 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 또는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교과서 편찬을 실현하고,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교과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이번에는 이런 교과서를 만들자

□ 학습을 안내하는 교과서

로저 샤크(2001, 295)는 ‘지난 세기와 그 이전의 수많은 세기 동안, 교육을 받는다는 것, 따라서

지성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의 축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용하는 능력, 어떤 관념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했으며, 교육은 정보의 축적을 의미했고 대중이 생각하는 지성이란 자신이 축적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에 불과할 때가 많았지만 그 사실들이 벽에 썩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를 물었다.

우리는 그 동안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강변해도 시험 기간만 되면 드러나고 마는, 암기 위주의 교과서, 가치 주입식 교과서를 만들어 왔다. 이번에는 기필코 이 전통을 탈피해야 한다. 암기 위주의 교과서를 만들면 학생들을 붙잡아 두기에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이다. 가치 주입식 교과서의 전통도 탈피해야 한다. 일찍이 강우철(1991)이 “개별성이나 자율성이나 창조성이나 하는 교육의 이상은 공동체적 규범을 익히는 것을 중요시하던 문화 환경에서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다.”라고 한 바와 같이 공동체 의식이나 공동체적 규범 익히기를 강조하는 교과서를 만들면 그러한 교과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실에서는 개별성이나 자율성, 창조성을 기르자고 하는 주장 자체가 의아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교과서에 담겨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내용을 전달하고 암기하는 데 힘쓰면서 이론적으로는 탐구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따위의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곤란한 고급스런 능력을 강조

하는 이원적인 가치 부여 속에서 갈등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좀 과장하여 설명한다면 교과서의 내용을 잘 암기하면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성적을 내는 현실에서 탐구하고 비판하라는 요구가 아무런 소용이 있을 리가 없는데도 우리는 탐구와 사고를 강조하는 헛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다.

교과서의 가치가 지식의 전달에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번에는 바꾸어야 한다. 로저 샤크(2001, 301)가 “우리가 아직 교사와 교실과 교과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50년 뒤에는 거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사람들은 우리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교육 개념을 바꾸는 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왜 수능 성적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왜 답을 암기하는 것이 지능의 증거라고 생각했는지 물을 것”이라고 한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익숙해진 설명을 한다면, 지식의 양이 확대 확산되는 양상과 속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2000)에서도 ‘공부하는 방법의 공부’, ‘지식을 얻는 지식’을 지식의 제2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아직은 학교가 질문하는 능력을 배우기보다는 대답하는 능력을 배우는 곳이라는 하지만 누구나 ‘좋은 물음 만들기’야말로 훌륭한 학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 ‘물음’이라는 것은 자율적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 정보를 구하는 기준이 되고 학습 의욕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심지어 기초적 기본적인 지식만은 주입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의심해야 한다. 그러한 의심을 하지 않고 기초가 되는 지식은 암기시켜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예를 들어 얼마든지 창의적인 기호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우리가 만든 지도의 기호부터 외우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우리는 획기적인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전통적 교과서 형태를 답습해 왔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교과서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해 온 것 같기도 하다. 교과서가

어떻게 수많은 종류의 다른 자료들과 같은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않는가. 우리가 자유 발행제의 전면 적용 이전에는 어떠한 교과서관(教科書觀)에 의한 주장도 교과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라면, 교과서의 유일무이한 안내서로서의 구실까지 폐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과서의 그러한 구실에 대해 김재복 등(1997)은 “있는 그대로 내면화하기를 요구하는 최종 산물의 형태로 제시하기보다는, 그러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과정을 처방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 홍용선(1990)도 “‘닫힌’ 교과서관은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오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이리 저리 변경할 수 없고, 모든 학생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달해야 되는 것으로 가정하거나 믿는 교과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해 “‘열린’ 교과서관을 갖게 되면 첫째, 모든 문제에 한 가지만의 정답이 있다는 가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과서의 내용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허용되며, 둘째, 교과서는 여러 학습 자료의 일부로서 이해되고, 셋째, 교과서 의존 교육에서 탈피하여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이 촉진되며 창의성과 능동성이 강조된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교과서에는 정답이 제시되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아무런 학습도 일어나지 않도록 구성해 주어야 자율성, 탐구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 같은 고급스런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그런 교과서가 나와야 학생들에게 다양한 참고용 도서를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학습’이 겨우 교과서의 내용을 잘 기억하여 오랫동안 암기하는 것이어서는 한심한 일일 수밖에 없다.

□ 교과서의 구실만 하는 교과서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해 온 ‘전통적인 교과서’는 교과서 자체의 위상만 부각되어 교육과정 기준이나 교사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교과

서였다. 그러한 교과서를 우리는 지식 전수 위주의 교과서, 원전으로서의 교과서라고 한다. 이러한 교과서와 더불어 교육과정 기준 또한 “이 내용을 재주껏 잘 가르쳐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 방법에 관한 권한(의무)만 인정하고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에 관한 권한(의무)은 인정하지 않는 문서에 지나지 않아서 교육과정 기준이 교재 연구의 기준이 되지 못했으므로 교사들이 교육과정 기준을 참조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리하여 교과서는 교사 위에 군림하여 왔고, 교과서가 교육의 ‘모든 것’이었다.

교과서가 교육과정 기준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학습 자료로서 교수 학습 활동의 부속품이 되게 하려면, 즉 교과서가 학생용 안내서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려면, 교사에게는 당연히 교과서보다는 교사용 지도서가 우선적인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일정한 교과서가 없이 가르치는 나라, 즉 교육과정 기준에 맞추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체제(단계)를 생각해 보아도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 의해 교과서를 개발한다면, 국정 교과서 개발 기관이나 검 인정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교과서에 앞서 교사용 지도서부터 제작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가르칠 계획부터 수립하고(교사용 지도서 집필), 그러한 계획의 실현에 필요한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공통적인 최소한의 자료(교과서)를 제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다만, 이번에도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형편이면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라도 우선 지도의 실재를 분명하게 구상해 놓고 그렇게 지도하는 데 필요한 학생용 안내서로서의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가 되도록 교과서 개발 연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2) 좋은 교과서가 나올 수 있도록 정기 검정제를 실현하자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4~8년 주기의 인정을 실

시하고, 일본이나 프랑스는 4년 주기 정기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정기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검정을 실시할 때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의무 교육제 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과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을 항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므로 교과서 편찬 기관이나 출판사에서는 언제 또 새로운 교과서를 발행하게 될는지 예측이 불가능하여 항상적인 연구나 투자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나, 일본은 교육과정 개정이 없어도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 검정을 각 4년 주기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매년 검정이 실시되고 있는 셈이다.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중래의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정 관행을 없애고,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교육과정 수시-부분 개정을 제안한 취지도 바로 급격히 증가하는 새로운 지식 정보를 학교 교육에서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개선에 초점을 둔 것이었고, 이후 정기 검정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기회에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기 검정제를 실시하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 담당 부서와 검정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체계적인 연구 및 업무 추진은 물론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안정적 투자와 편집 인력 확보 양성이 가능하게 되며, 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보완 및 국가 사회적 변화상의 적시적인 반영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질 높은 교과서 개발 관리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또, 교과서 검정 시기에만 교과서 시장으로 철새처럼 뛰어들고 이후 교과서의 품질 유지에는 전혀 비협조적인 출판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은 물론이다. 이에 비해 수정 보완에 대한 강제 규정이 미흡하다든지 검정 주기(예: 4년이나 5년) 출판사의 경제성 보장 문제는 현

제도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기 검정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없으며,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다. 정기 검정제를 도입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출판사에 대하여 ‘특정 교과목의 전문 출판사가 되라.’든지 ‘교과서 출판 연구를 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과서의 사소한 오류 사항까지 수정 지시를 하는 후진적 형태를 구태여 유지할 필요조차 없게 된다. **연**

참고 문헌

- 강우철. 「도전받는 사회과」. 강우철 편. 『달라져야 할 사회과 교육』. 교학사. 10~11 쪽, 1991.
-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교육 개혁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제2차 대통령 보고서). 49~50쪽 및 위 보고서의 설명 자료(보도 자료Ⅱ). 64~65 쪽, 1995. 5. 31.
- 교육인적자원부. 「지식 기반 사회와 교육」. 39 쪽, 2000. 11(미간행 자료집). “교육적 지식은 정태적인 관조적 지식만이 아니라 역동적인 실행적 지식과 균형을 이루어 통합되어야 한다. (중략) 지식 교육에 관한 한, 학교는 엘리트나 천재에 의해서 개발된 고도의 권위적 지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정보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지식 사회의 환경 속에서 대중에 의해서 생산된 지식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므로, 전달된 지식과 정보의 단순한 수용보다는 지식과 정보를 평가하고, 선택하고, 조직하고, 활용하고, 생산하고, 재구성하는 데 관련된 능력을 더욱 증시해야 할 것이다.”
- 김만곤 김차진 강환동 주용준. 『검정 도서 수정 보완 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 보고서, 2006.
- 김만곤. 「사회과 교과서의 발전 방향」(주제 발표), 한국 사회교과교육학회 2006 하계 학술 대회 발표 자료집 『사회과 교과서, 쓰기와 읽기』. 29~45 쪽, 2006.
- 김재복 김왕근 양미경. 『교과서 체제개선 연구-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내용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연구회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1997 교육부 정책 연구). 114 쪽, 1997.
- 문교부 편수국 교육과정담당관실(편수 업무 연수 자료). 「좋은 교과서란 어떠한 교과서인가?」, 1987. 문교부의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사회과 교과 교육학자 강우철의 견해를 인용한 것이었다.
- 홍웅선. 「교과서 개발의 원리」, 한종하 이양우 안희천 (보고자). 『교과서 개발의 발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 OR 82. 11 쪽, 1982.
- 홍웅선 광병선 박도순 김애송. 『교과서 제도 개선 연구』 (문교부 정책 연구 보고서). 73~74 쪽, 1990.
- 로저 샤크(Roger C. Schank). 「우리는 더 영리해지고 있는가?」, 2001.
- 존 브룩만 엮음 이한음 옮김. 『앞으로 50년』. 생각의 나무. 295~301쪽, 2002.
- 빌 게이츠 이규형 감역. 『미래로 가는 길』. 도서출판 삼성. 257~284 쪽, 1996.



교과서 관련 법규 문제는 없는가?



글 김정호(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

현행 교과서와 관계되는 법규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 질문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해야 될 현 시점에서 꼭 검토해 보아야 될 사안이다. 그 이유는 현행 교과서 정책 체제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교과서 편찬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앞으로 교과서 발행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 법규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현행 교과서 관련 실정법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을 통해 향후 교과서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1. 교과서 관련 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실정법상 교과서와 직 간접으로 관련되는 법은 ‘헌법→법률(교육 기본법, 초·중등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인적자원부령: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이다. 【표 1】

헌법은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이를 위하여 ④ “교육의自主性 專門性 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며,

⑥ “學校教育 및 平生教育을 포함한 教育制度와 그 운영, 教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라고 하였다. 이 31조의 학습권은 교육 정책 전반을 정당화시키는 근거이며 동시에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최고 준거가 된다.

교육 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은 좀 더 직접적으로 교과서 편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교육 기본법은 ‘전인 교육의 이념’(제2조)과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재 및 교육 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제12조)라고 하여 교과서(교재) 구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초·중등 교육법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제23조 ①) ‘국정 검정 인정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하고’(제29조 ①),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고 하였다. 이 29조가 바로 교과서 관련 최고 법적 근거가 된다. 이 법이 헌법 제31조에 이어 규정한 ‘교육 자주성과 중립성’(제5조-‘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실시’, 제6조-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은 교과서 편찬의

중요한 규범이 된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특정한 세계관을 강요하거나 특정한 정치 세력에만 영합하는 교육을 방지’ (김철수, 2006)하고, 종교적 종파성과 당파적 편향성을 배제한 공평한 교육을 하도록 교육에 대한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개입을 배제 (강인수 외, 1996)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 편찬시에 먼저 저작자 자신이 균형된 관점과 보편적 사고에 따라야 하고, 심의위원회도 그러한 사실의 위반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과서(학생용의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 편찬 심의 가격 등을 규정하였다. 검정 실시 공고(제7조-검정 도서 종류와 검정 기준 및 신청 기간 등)는 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하고, 검정 결정은 1차와 2차 심의를 거쳐 하고, 검정 도

서의 원활한 발행 공급을 위하여 공동 인쇄 발행을 할 수 있다. 교과서 가격은 교육부가 지정한 외형 체제에 따라 ‘재료비, 인쇄 제조비, 일반 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저작자의 인세, 발행자의 연구 개발비, 공급 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규정은 교과서 검정 업무를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제44조 ②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하였다. 그 내용은 ‘검정 심사 및 의견 접수, 검정 및 인정 신청에 대한 합격 결정, 검정 도서의 합격 공고, 불합격 결정의 내용 및 이유 통지, 검정 수수료 금액의 결정 공고 및 수납, 국립 학교와 공립 방송통신고등학교용 교과서 인정 심사 등’이다. 이 규정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검정 심사-합격 결정 공고’를 하게 된다.

【표 1】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실정법 체계

법	교육 교과서 관련 주요 내용
헌법	<p>■ 제 31 조(교육을 받을 권리)</p> <p>第31條</p> <p>① 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均등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p> <p>② 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p> <p>③ 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p> <p>④ 教育의 自主性 專門性 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p> <p>⑤ 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p> <p>⑥ 學校教育 및 平生教育을 포함한 教育制度와 그 운영, 教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p>
법률	<p>■ 제 2 조(교육의 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제 3 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p> <p>■ 제 5 조(교육의 자주성)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p> <p>■ 제 6 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p>

법		교육 교과서 관련 주요 내용	
법률	교육 기본법	<p>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p> <p>■ 제9 조(학교 교육) ③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p> <p>■ 제12 조(학습자) ②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p> <p>■ 제14 조(교원) ④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p>	
	초·중등 교육법	<p>■ 제23 조(교육과정 등)</p> <p>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p> <p>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29 조(교과용 도서의 사용)</p> <p>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p> <p>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p>■ 제1 조(설치) 학교의 교육과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이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한.</p> <p>■ 제2 조(구성) 교과별위원회, 학교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p>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p>■ 제1장(총칙)</p> <p>■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 및 인정</p> <p>■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p> <p>■ 제4장 수정 및 개편</p> <p>■ 제5장 발행</p> <p>■ 제6장 가격 사정</p> <p>■ 제7장 감독</p> <p>■ 제8장 권한의 위임</p>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p>■ 제44 조 (교육인적자원부 소관)－④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3. 교과용도서의 검정 인정에 관한 사항</p>
	부령	교육과정	<p>■ 총론, 각론(과목별 목표－내용－방법－평가)</p>
		검정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	<p>■ 검정 대상 도서, 신청 자격, 검정 시행 등</p>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p>■ 유의점: 편찬 방향, 유의점(공통 기준－교과 기준), 외형 체계</p> <p>■ 검정 기준: 개요, 공통 기준, 과목 기준</p>

교육과정은 교과 편재와 과목별 목표-내용-방법-평가를 규정하여 교과서 편찬의 준거가 된다. 그런데 모든 학교가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국가 교육과정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개정할 것인지를 규정한 법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이란 용어가 나타나는 법규는 초·중등 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인데, 그 제정·개정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도 없다.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자료집인 교과서를 위해서는 대통령령도 제정(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칙)되었는데, 그 상위 정책인 교육과정에 대한 법규가 없다는 점은 재검토해 볼 주제이다.

검정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와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과 검정 기준은 검정 대상 교과목의 도서를 지정하여 유의점과 외형 체제 및 검정 기준을 고시하기 때문에 교과서 검정에 실질적인 지침이 된다. 이와 같이 교과서 편찬은 헌법에서 검정 기준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법규에 따라 이루어진다.

2. 교과서 관련 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은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이 만든 약속이다. 그러므로 내용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아야 하고, 목적과 방법이 정의(正義)의 원칙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며,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언제나 안심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법다운 법이 된다. 물론, 무엇이 정의인지는 한 가지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권리-의무 관계가 정합성을 갖고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정의의 최저 조건이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법적 안정성도 한 번 만든 법은 고치지 말고 언제나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에 맞도록 유연하게 고쳐져 그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미래 법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현

행 교과서 관련 법 체계에는 문제는 없는가?

먼저, 교과서의 상위 준거인 교육과정 관련 법부터 보자. 교육과정 관련 법령은 초·중등 교육법 제23조와 동 시행령 및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이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문서로 고시하는 교육과정 자체가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교육과정의 본질적 내용인 기준과 내용 및 형식인 제정·개정 절차에 대한 법령은 없고,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대한 규정만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개정 절차는 학문적인 전문성과 행정적인 효율성 및 상황적 유동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그 기본 원칙은 법제화해야 한다. 그 방법은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을 ‘교육과정 규정’으로 개편하여 개정 과정과 내용 결정 및 심의 원칙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제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법을 보자. 교육 기본법이 천명한 바와 같이 전인 교육을 대전제로 하여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교재의 목적) 학생 인격과 개성 존중형(교재의 조건)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하는 것이 교과서 편찬 관련 법의 함목적성이다. 그러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천명하였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교재 중의 주된 자료로서의 교과서, 정확하고 균형잡힌 내용 등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는 편찬상의 유의점이나 검정 기준은 내용상 정의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다. 또, 엄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발행을 허가하도록 규정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검정 절차와 방법도 정의에 합치된다. 그러나 이 법 규정에 대한 사회적 쟁점도 있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책무 체계의 정합성 부문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판례와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발행 제도 검정 대상 교과목 선정 검정 시행 과정으로 나누어 논의하여 보자.

교과용 도서 발행 제도에는 국정 검정 인정제가 있다. 이 제도의 쟁점은 헌법상 국 검 인정제의 합헌 여부와 자유 발행제 허용 여부이다.(헌법재판소 판례 1992. 11. 12. 89헌마 88; 김유환, 2002; 이

계수, 1999. 등) 이 문제는 이미 199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정리된 사안이므로 간단하게 보자. 1989년 교과서 제도의 위헌 여부를 묻는 청구인의 주장은 ‘교과서 제도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은 헌법 제31조의 교육 교과서 제도 법률주의에 위반되고, 국정제는 헌법의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며, 검 인정은 검열에 해당하여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미성숙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전인 교육을 위하여 대학교 달리 초·중등 학교 교사의 수업 내용에 제약을 가하는 교과서 발행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정당하고, 검정에 합격되지 못한 도서라도 출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관여하는 교과서 국정·검정·인정 제도 자체는 합헌이며 그 결정은 정부의 재량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국정 제도보다는 검 인정 제도를, 검 인정 제도보다는 자유 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언하였다.(1992. 11. 12. 89헌마 88)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사의 주장을 새겨 들을 능력이 없으므로 교사들은 국가가 감독·검열한 뒤 인정해 준 내용만 교육해야 한다는 전근대적 교육관에 근거해서는 창의력 있는 교육은 가능하지 않다.”(이계수, 1999)는 비평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가 감독·검열한 내용→창의력 교육 불가’라는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 국가가 개입한다 하여도 사전에 공개된 기준을 가지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하는 현 교과서 검정 체제에서 보면 이 제도가 국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거나 특정 가치는 배제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현실성이 낮다. 그리고 창의력 교육은 교과서 내용보다 교수·학습 과정과 방법의 개방성·유연성 등에 따라 되는 것이므로 국·검정 교과서로 창의력 교육을 못 한다는 주장은 단순 논리라고 본다.

이렇게 교과서 국·검 인정제의 가치를 부정하고

무조건 자유 발행제를 주장하거나 자유 발행제를 거부만 하는 것은 모두 헌법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교과서 발행 정책을 유연하게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앞으로 다원 개방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장기적으로 현행 국정 교과서는 검정제로, 검정제 중 선택 과목은 인정제로, 그리고 인정 교과서는 자유 발행 형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교과서 검 인정제를 유지할 것 같으면 이 제도가 획일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교육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내는 기제로 작동하지 않도록 교과서 검정의 실제적 범위를 입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주장(김유환, 2002)과 같이 교과서 발행의 실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검정 대상 교과목 선정은 검정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를 통해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정책 결정 사안이다. 즉, 학교 급별로 어느 교과목을 검정으로 하며, 그 검정 교과용 도서에 교과서만이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 공고에 들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이 공고에 검정 교과서의 결정 기준과 결정 과정은 없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할 때마다 시장에서는 교과서 발행 제도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여 투자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 예를 들어, 2006년 10월 1일에 공고한 영어 수학의 검정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를 보면 수학은 중·고등학교만 검정으로 하고, 영어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검정제이다. 같은 초등학교 교과서라도 왜 영어는 검정이고 수학은 국정인지 그 판단 사유와 결정 절차에 대한 법규나 공식적인 정책 설명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정부의 재량권이라고 하여도 정책의 합리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교과목별로 발행 제도를 결정하고 나면, 대상 도서에 교사용 지도서를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또 제기된다. 그 문제는 ‘교과서와는 다른

교사용 지도서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미 사법 판단까지 받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고법 1986. 8. 12. 83구910 제6특별부 판결【2종 교사용 도서 1차 심사 결과 부적 판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에서 '…… 교사용 지도서에 있어서는 교과서보다 폭넓은 집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정 심사는 공적 교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김유환(2002)은 '교사용 지도서는 검정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한다고 해도 심사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서의 성격 외에 두 가지를 더 들어 검정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우선 교과목에 따라 지도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고등학교 선택 과목 검정 당시 '한국 근 현대사'는 지도서가 없고, '법과 사회'는 지도서까지 심사를 하였다. 같은 사회과 신설 선택 과목인데도 이러한 차이가 왜 나는지 공식적인 정책 설명은 없었으나, 이를 통해 지도서가 교수 학습권 행사에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는 미성년자가 배우는 필수 교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심의하지만, 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지도서까지 교과서와 같은 조건으로 심의하여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교사가 수업을 할 때 지도서가 있으면 도움 된다는(또는 지도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과 지도서도 국가가 검정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논리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안을 모두 행정 재량에만 맡겨야 할 것인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발행 제도 결정 기준만이 아니라 교과목별 제도 선택 및 검정 대상 도서 선정 등의 결정 절차도 법규 사항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즉, 장기적인 교과서 발행 제도의 정책 전환에 앞서서 '국검 인정제'를 구별하는 기준과 결정 절차(방법)를 법규에 제시하는 것이 헌법의 교육 제도 법률주의를 존중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정부의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검정 대상 교과목의 편찬 방향과 심사 준거는 문서로 된 '편찬상의 유의점과 검정 기준'을 통해 검정에 참여하는 관계자에게 교과서 편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편찬상의 유의점은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2006년 12월에 공고한 영어 수학과 같이 판형(4×6배판), 지질(본문: 용지 75±2g 미색지, 표지: 아트지 250(g/m²)에 UV 코팅), 색도 4도 이내, 편집, 쪽수(초등학교 영어 3학년 80쪽/고등학교 수학 350쪽 등)를 규정한 외형 체제에 있다. 편찬상의 유의점이 천명한 교과용 도서 편찬의 기본 방향인 '학생의 학습 능력과 창의력 신장에 적합한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열어 주어야 한다. 창의력 신장을 하려면 학생 수준과 흥미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여 다양하게 개발한 교과서를 사용하여 열린 교수 학습 방법을 보장해야 한다. 다양한 교과서와 열린 수업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 모두 내용은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니 새롭게 선정할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다양성이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고 외형을 편집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부문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정부는 도서의 최고 가격만 고시하고 외형 체제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더하여 검정 시기(정기 검정제라면 몇 년 주기인지)와 시행 방법도 분명하게 제시하여 시장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투자 계획을 세우도록 해 주어야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다.

검정 시행 과정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조건은 편찬상의 유의점과 검정 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동 규정은 검정 심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교과용 도서심의회(교과목별 5인 이상)가 한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검정 결과 결정은 교과용도서심의회 결과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검정 시행 과정을 보면 '교육과정 고시-편찬

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고시-심의위원 위촉(교육인적자원부)→검정 수수료 고지-신청 도서 접수(한국교육과정평가원)→심의(교과용도서심의회)→검정 심사-합격 결정 공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과용도서심의회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세 기관이 관여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구성한 위원회의 심의 사안을 민간 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 사례는 미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체제이다. 일본의 문부성과 미국의 주 교육부는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여 최종 결정을 한 뒤,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체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과용도서심의회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할 관계상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 못한 부문이 있으므로, 앞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나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역할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맺음말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교과서 관련 법규에서 전인 교육과 학습자의 학습 능력 신장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발행 제도에 대한 사회적 쟁점이 있다. 그리고 발행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한과 책무에 대한 논란도 있다. 그러나 판례상 위헌이나 결정적인 하자는 없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시급하게 개폐할 일은 아니다. 물론, 합법적인 것이 모두 최선만은 아니지만, 사회적 쟁론의 최종적 해결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유권 해석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실정법을 존중하면서도 그 입법 취지를 살피 교과서 발행에 대한 중요 정책 사안은 가급적 법규로 제정하여 판단 기준과 결정 과정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교육행정학회도 교육법론(1996)이라는 책을 통해 교육과정과 관련된 법에 대하여 '교육과정 통제 및 결정 권한의 불명확하고 명문 규정이 결여되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의 해석이나 해설

에 의거해서 그 행정이 이루어지는 점이 많다.

이러한 법의 흠결 상황에서 교육부는 교육과정 행정에 대한 포괄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개선안으로 '적정 수준의 분권화 규정,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교재 채택 학부모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등'을 들었다.

물론, 동 학회가 제안하였던 여러 대안은 대부분 2000년 이후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이미 시행중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행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 학회가 제기한 법의 흠결이나 불명확 등은 법 체계와 교육적 논리 및 현실 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실정법 자체는 존중하고 지켜야 마땅하지만, 빠진 사항이 있거나 합리성이 낮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 보완 수정해 나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과 정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행정의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비전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외국의 입법 사례를 놓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교 교육 제도와 문화 등을 고려하여 비교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인수 외. 교육법론.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 행정학 논문서 8. 도서 출판 바우, 1996.
- 김정호 김광민 이춘식.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체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 김철수. 헌법학 신론-제16전정신판. 박영사,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영어 수학교육과정 개정 고시(제2006-75호, 2006. 8. 29.)에 따른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2006. 12.
- 김유환. 교과서 국정 및 검인정 제도의 법적 문제. 제10회 학술 발표회 교과서 제도의 재검토. 한국교육법학회. 29-44, 2002.
- 이계수. 교과서 국정제 및 검인정제에 대한 재검토 :1992. 11. 12., 89헌마88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사회 과학 논집 제9권 2호. 113-13, 1999.
- 헌법재판소 판례 정보(<http://www.ccourt.go.kr/>)



글 고민정(예테보리대학 Centre for Asian Studies 강사)

스웨덴의 교육과 교과서 제도

1. 스웨덴 학교 시스템, 그리고 교과서

현재는 정치 중립 국가인 스웨덴이지만 스웨덴도 과거에 이웃 나라와 영토 전쟁이 잦았다. 그래서 스웨덴 일부 교과서에 아직도 덴마크 왕이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지적하에 현 시대 상황에 맞추어 내용을 다시 기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교과서 내용은 한 사회의 발전을 반영한다. 교과서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교과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학교에서 교과서 이용을 통해서 스웨덴 학교 문화를 엿본다. 우선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학교가 소속된 지역 사회의 변화가 학교 개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교과서 등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는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스웨덴의 학교 시스템

학교에서 쓰이는 교과서에 대해서 기술하기 전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웨덴의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려고 한다.

스웨덴에서 의무 교육 기간은 7세부터 16세까지 9년간이다. 그러나 6세 아동도 원하면 1년간,

적어도 525시간에 해당하는 수업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입학이 8세로 미뤄지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를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코문(시 단위 지방 제도) 소속의 공립 학교에 가지 않고 몬테소리 학교나 인터내셔널 학교,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등 사립 학교에 가는 경우도 있다.

의무 교육 후 16세에서 19세까지 ‘짐나지움(Gymnasium)’이라고 불리는 제2차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17개 프로그램 중 15개는 특정 직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나머지 2개의 프로그램은 향후 대학을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짐나지움 학생들은 8개의 필수 과목을 학습하는데 전체 학습 시간의 1/3 정도를 할애하고 나머지 2/3의 시간은 특정 프로그램에 관련된 직업 교육 훈련에 관련된 과목으로 수업이 편성된다.

각 학교는 학급 수, 내부 조직,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9년간의 의무 교육 동안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최소 수업 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각 코문(시 당국)은 학교의 운영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국민이 낸 세금을 학교로

할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얼마나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을 모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학기 초에 각 학교는 오픈 하우스 행사를 열어서 전시, 시범 수업, 학교 견학, 레크리에이션 등을 준비해서 학부모와 학생을 초대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이민자가 밀집되어 사는 지역 학교의 사회 통합 문제가 종종 대두되고는 한다. 코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종종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이런 지역의 학교로 할당하여 교사 수를 증대하고 다채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쓰기 때문에 교외 지역의 학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이다.

3. 교육의 지방 자치화와 교과서

지난 16여 년 간 스웨덴의 학교 시스템은 중앙 정부의 교육과학부에서 지방 자치 정부로 책임이 이양되는 구조 조정을 겪었다. (이에 대한 역사는 이후에 다루기로 한다.) 비록 스웨덴 중앙 정부 산하의 교육부가 커리큘럼, 국가적인 목표, 국 공립 학교에 대한 가이드 라인 등 전국적인 교육 체계를 정의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교과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획일화된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방 분권화로 특정 과목에 대한 학교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를 발견할 수는 없다.

스웨덴의 교육 시스템은 목표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 및 활동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설정된 목표에 맞추어 결정되기는 하지만, 어떤 교육 활동 내용이나 형식을 이용해서 이 목표를 성취할 것인지는 교육 목표가 지정하지 않는다. 교육 목표는 주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글로벌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 또는 특정 과목에 따른 특수 기술을 성취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목표 지향적 시스템과 이른바 커리큘럼 지향적인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들자면 목표 지향

적인 시스템에는 어떤 과목이든지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국가적 커리큘럼이 있어서 각 교과목의 성격과 지향점을 묘사하고는 있다. 각 학교, 심지어 학교 내의 소규모 단위 분과별로 각각의 시간표 및 요강을 계획한다. 그러나 이들 계획은 각 과목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 정부가 정해 놓은 광의의 교육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 개별 수업에 대한 주제와 범위를 결정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교사에게 부여되고 있다.

반면, 교육 평준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5학년과 9학년에 있는 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시험은 필수적이며,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험 성적은 학생 개개인, 교사, 학교가 전국적인 평가 기준에 맞추어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역사 교과목에 대해서 9학년(16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가 커리큘럼이 정해 놓은 교육 목표를 그 예로 살펴보자.

- ① 스웨덴, 북유럽, 유럽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역사적인 발전에 기여한 인물, 사고, 변화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다.
- ② 각각 다른 시대에 세계를 좌우했던 권력의 발전에 대해서 배운다.
- ③ 어떻게 주요 사회적 변동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해한다.
- ④ 현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과 발전을 구별하고 사고할 수 있다.
- ⑤ 어떻게 정보와 정치 선전이 과거와 현재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데에 이용이 되어 왔는지를 사고할 수 있다.

이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 교사들은 세계사를 다루는 수업 요강을 작성한다. 실제 수업에서는 교과서 등 수업 보조 교재의 내용이 실제 수업 내용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 전에 교재는 사실 근거성과 객관성 등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중앙 정부의 사전 평가를 받아야 했다. 오늘날 중앙 정부의 커리큘럼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교재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심지어 학생들이 직접 교재를 만들어 쓰는 것을 장려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에는 교과서를 검열하는 제도가 없다.

4. 스웨덴 학교에서 교과서의 이용

스웨덴 초등학교와 집나지움(제2차 학교/고등학교)에서 교과서는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지난 20년간 교과서는 다른 보조 교재, 예를 들면 학교 도서관 자료, 신문 기사, 박물관 관람을 비롯한 보조 교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다. 교육 교재 선택은 교육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스웨덴 교육 시스템이 각각 광의의 커리큘럼에서 조사 활동의 가치가 강조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스스로 조사를 하는 과정이 특수 학습 분야와 연결된 보조 교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교육과 2차 고등학교의 고학년에서 교과서는 필요할 때 이용되고 있다. 스웨덴 교육 시스템의 지방 분권화와 더불어 중앙 정부의 교육 교재 허가 제도는 1991년에 중지되었다. 그 전에 교재는 사실 근거성과 객관성 등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중앙 정부의 사전 평가를 받아야 했다. 오늘날 중앙 정부의 커리큘럼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교재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심지어 학생들이 직접 교재를 만들어 쓰는 것을 장려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에는 교과서를 검열하는 제도가 없다. 단지 스웨덴 남부 지역의 룬드(Lund)에 있는 도서관에서 새로운 교과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정도이다.

5. 스웨덴의 학교 시스템 지방 자치화 과정과 최근 움직임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 재량권 및 지방 분권 제도는 어떠한 과정을 걸쳐서 발전된 것일까?

이미 1970년대에 스웨덴 사회는 정치적인 지방 자치화를 총체적으로 거쳤고 학교 시스템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였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말에 의무 교육 서비스가 더 이상 중앙 정부에 의해 주도되지 않아야 하며, 대신 지방 자치 정부나 코문에서 이를 관할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서 건의되었다. 주된 취지는 학교가 지역 주민들과 더욱더 친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변화는 현직 교사들이나 행정가들에게 큰 도전이었다. 스웨덴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에서 언어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안텔스 스벤손 씨는 “당시 교사들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월급이 갑자기 줄어들고 새로운 관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방 정부에게도 이런 문제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모두 우왕좌왕했습니다.”라고 회고한다. 또, 의무 교육에 대한 국가법을 해석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어 이해 당사자마다 다르게 해석을 내리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혹자는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글로벌 사회로 발전하는 데에 건강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내렸던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평준화된 교육이 줄어들고 스웨덴의 지역마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등의 문

제를 예견했다. 예테보리의 경우, 추가로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큰 코뮌이 또 21개의 구역(스타즈텔스넴더, Stadsdelsnämnder)라는 소규모 단위로 나누어졌기 때문이다. 이 행정상의 변화는 교사 등 실무자에게 이전에 평준화된 교육 방법이나 교재 등이 불분명해지는 등 실제 교육 현장에 대폭적인 변화 및 혼란을 예고하는 시작점이었다.

그 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여기에 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 목표 및 지침이 커리큘럼 형식으로 명시되었다. 1990, 1991년 개정법에 따르면 지방 자치 정부가 교육 활동을 조직하는 데 전보다 대폭 강화된 자유를 얻었고, 세금을 다루는 책임 역시 지방 자치 정부로 권한이 대폭 이양되었다. 여기에 중앙 정부는 각 지방 자치 정부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금을 부여하게 조치되었다.

1991년에 학교 행정법 역시 개정되어 이른바 중앙 정부의 교과서 및 교재 위원회(SIL, Skolöverstyrelsen)가 철폐되었다. 대신 국가 교육 위원회(Skolverket)가 새롭게 설립되어 학교의 발전과 학교 교육의 평가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애초에 SIL가 했던 교과서 및 교재 검정 활동을 새로운 기구가 대신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 교과서를 교육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보다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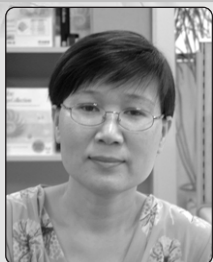
2000년대에 들어서 교과서 내용의 통제가 더욱 더 약화됨에 따라 보다 시장 지향적인 학교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 교재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출판사들이 학교에 교육 교재를 스폰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혹자는 스폰서 등장 등 시장 지향적으로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서, 근간에 국가 교육 위원회가 교재를 평가하거나 정의할 아무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을 한다. 그래서 실제 사실에 근거한 내용보다 출판사의 이권에 근거한 편파적인 교육 내용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적으로 보다

체제 수호적인 시선을 선호하여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들은 배척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전에 책으로 출판되던 교재들이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전자 교재로 다량 출판되고 있는 것도 현재 교과서 시장의 또다른 특징이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 지향적인 발전은 새로운 종류의 쌍방향 평가의 기회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교사들이 Utbudet.com 같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교재를 발견하고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스톡홀름 교육 대학의 교수인 스타판 셀란더 씨는 “국가 프로그램이 산업화 시기의 관점에 의해서 생산되었던 산업화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당시 학생은 학생이었고 교육은 일정한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뉴미디어의 발전으로 음악이나 광고 분야가 발전하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교사 등)가 어떤 종류의 교재를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시대에 뒤쳐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다. 교사가 교재를 선택하는 것마저 시대에 뒤떨어지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는가. 이 구분마저 모호해질 것만 같은 요즘, 스웨덴 학교에서 교육이란 단어는 ‘학습’이라는 단어로 교체되고 있다.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내용을 결정하고 한 사회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온갖 가치, 의견,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글로벌 사회에서 이상적인 학습일 것이다. **연**



쉽게 쉽게 만들어도 교과서는 어렵다?

글 이광옥(아트미디어(주) 이사)

□ 들어가며

새로운 교육과정이 발표되었다.

바람·바람·바람은 불었는데 통 시원치가 않다. 답답하기만 하다.

신문지상의 보도 기사를 통해 멀티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교과서관에 대한 현실감도 와 닿는다. 에너지 탓일까? 환경 탓일까? 환경 변화에 더딘 사고 탓일까? 지적인 능력만 주어진다면 대한민국 저승의 나이 여든 살까지를 거역하지 않고도 실전에서 일할 수 있으리라는 욕심에서 생각과 감각, 가슴과 머리, 눈과 두뇌를 회전시킨 지 반년하고도 겨우 손가락 6개를 꼽았을 뿐인데 벌써부터 후배들을 통해 격세지감을 느낀다.

일곱 차례의 교육과정을 지나 여덟째 번의 새 교육과정을 맞이한 지금, 교과서와 인연을 맺었던 그때의 그 편집의 주역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칭 편집이라는 책임감 하나만으로 엘리트라 지칭했던 그 시대의 주역들 또한 추억? 향수? 미련? 도전! 을 즐기고 있을까? 아니면…….

새 교육과정과 맞물려 며칠 전 교육인적자원부의 '책, 연필 없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라는 기사 내용을 보았다. 새로운 교과용 도서의 창출은 시대적 요구란 말인가? 종이 교과서의 자생력은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앞으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새 교과서의 방향에 교과서와 관련된 관계자들은 신바람을 찾아 넣기 위해 분주할 것이다.

□ 생각하며

흔히, 출판 사업을 예측 사업이라고 한다.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교과서에 대한 애증과 함께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성향에 대한 향수가 그리워진다.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에피소드 중 하나인 '이젠 교과서 만드는 일에 손 떼야지.' 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무용담처럼 되어 버린 교과서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은 마법에 걸린 까닭일까? 저자들과의 조화, 편찬 방향의 제시와 수정·보완, 자기색이 뚜렷한 개성과 경력을 지닌 화려한 편집진들과 집필진들의 제설 분분한 이론이 가슴 한쪽 여운으로, 새로운 교과서의 모습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밤을 지새웠던 지인들에 대한 애뜻함과 함께 추억이 아련하다.

1. 국정 교과서를 만든 편집자들의 힘은 무엇일까?

교과서의 편집 업무를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를 두루두루 진행하면서 본인에게는 교과서 편집에 대한 향수가 짙다.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의 개발 방향,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숨겨진 비밀과 허와 실을, 교과

서 개발상의 허점과 특징점을 마치 아날로그 세대와 멀티미디어 세대의 교감점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교과서를 편집한다는 긴장된 마음과 숙연했던 마음을 후배들이 옛날 이야기쯤으로 들어주거나 할까?

교과서의 성향을 보자. 출판사가 개발 주체가 되어 편찬하는 검·인정 교과서와는 달리 연구 기관의 연구진, 심의진, 집필진의 심의된 원고로 편집했던 국정 교과서의 편찬 업무는, 교육과정의 끝 교과서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던 교과서(를) 교육했던 1990년대 이전의 그때 그 시절의 교과서관 입장에서는 기획이라기보다는 편집 요소가 더 강했던 편집 업무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편집 기획 요소가 더해져 교과서의 변화를 찾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러한 교과서관 속에서 편수 업무의 중요성과 절대성, 상징성은 편집자들의 기획력을 얻기보다는 오류가 없는 교과서를 편집하는 데 연연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해보면 편집자의 기본적 소양 교육과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사고에 익숙하지 않았던 선배들의 고루함을 제외하고는 경전화된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 제도를 반영한 교과서관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적어도 그때는 교과서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교과서를 편집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일로서 품 좋은(?) 일이기도 했다. 교과서 집필자가 교과서에 적합한 글을 쓰기 위한 능력을 키우듯이 교과서 편집자 또한 정서법과 교정, 내용을 다듬어 나가는 실력을 키웠다. 교과서를 만드는 책무에 대한 남다른 열정, 관리 능력이 있었고, 관계자들의 사명감이 있었다.

어찌 보면 그 책임감 때문에 그때의 주역들의 운명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인쇄가 걸려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혹 오타가 발견될세라 가슴 졸이며 밤을 밝히고, 오타 한 자를 수습하기 위해 총알

택시에 몸을 싣고, 새벽 1시, 2시를 가르기를 몸과 마음이 함께했던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분명 추억만은 아닌, 본인 또한 선배들의 조언을 겸허하게 되새김질해 보고자 하는 뜻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등식으로 경전시하였던 선배들 세대에 이어 오늘날의 변화하는 국정 교과서 편집자들의 기본적 소양과 역량은 얼마만큼 담당할 수 있는가?

1. 편집의 전반적인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가?
2. 집필 원고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고 있는가?
3. 정서법, 교정·윤문의 중요성을 알며, 원고를 재구성할 수 있는가?
4.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기획 편집을 하고 있는가?
5. 국정 교과서의 내용적, 외형적 체제의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6. 적시성에 맞춰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수 있는가?
7. 정보 자료 수집 능력과 해석 능력이 있으며, 수정·보완·관리 능력이 있는가?

또한,

2. 검 인정 교과서를 만든 편집자들의 소양과 역량은 이대로 괜찮은가?

편집자들이여! 기획자들이여! 개발자들이여!

교과용 도서의 개발자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편집자로 소명감, 자긍심, 책임감이 강하며, 출판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가진 자를 필요로 한다. 더불어,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교육과정의 해석 능력, 분석 능력, 적용 구성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정서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교정, 윤문, 편집 기획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또, 외부 협력자와의 신뢰성을 이끌고, 정보 능력과 관리 능력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편집자들과 저자들의 비책으로 녹겠지만,
교육과정상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과 집필상의 정확한 목표, 수정·보완의 관리 능력과
더불어 앞으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현실성, 실현 가능성, 현장 적용성을
교과서 속에 어떻게 아우를 것인지, 기대하는 교과서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고를 이끌 때, 편집자의 소양과 역량에 힘이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흔히 ‘교과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교과서가 어느 책보다 편찬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오류가 없다는 신뢰성을 의미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을 적용하는 내용적 요소와 관리 능력에 잇따른 허와 실은 고기 반 물 반으로, 교과서에 대한 극대화는 희석되고, 검정 교과서에서 정서법과 문장의 오용 관계 등을 비롯하여 3,000여 곳이 수정 사항으로 내려졌던 이야기는 교과서를 진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편집자들과 저자들의 비책으로 녹겠지만, 교육과정상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과 집필상의 정확한 목표, 수정·보완의 관리 능력과 더불어 앞으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현실성, 실현 가능성, 현장 적용성을 교과서 속에 어떻게 아우를 것인지, 기대하는 교과서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여러분은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신학기가 되어 아이들의 교과서를 챙겨 보았다. 옛날엔 새 교과서를 받으면 새 책을 받았다는 기쁨에 설레어 잠을 못 이루고 교과서를 쉽게 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달이 바뀐 달력 그림으로 표지를 예쁘게 싸고는

이름을 정성스럽게 써 가방을 정리하고는 하였는데……어찌 된 일인지(뜨끔)……직장 생활 핑계로 돌보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순간 가슴이 철렁거렸다.

신학기가 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교과서 표지의 이름을 죄다 감정을 넣어 국어를 북어, 수학을 순대, 사회를 사닥다리, 미술을 마술, 음악을 으악이라고 낙서한 중학생인 아들의 책에서, 오빠 따라 함께 국어를 나발통, 수학을 숫자놀이, 사회를 우리마을, 미술을 무지개, 음악을 소리통이라고 덧붙여, 이것저것 캐릭터를 붙인 딸아이의 책을 보면서 책을 깨끗이 쓰라고, 교과서를 사랑할 줄 모른다고 나무랄 수가 없었다.

큰 아이가 교과서를 만드는 엄마를 의식하였는지, “엄마, 책이 두껍고 공부하기에 불편해요 얇게 좀 만 들어요.”라고 주문을 하면서 새 책을 서슴없이 단원별로 뜯었다. 순간 당황했지만 생각할 여지가 번쩍거렸다. “엄마가 만드는 교과서인데 사랑해 주라.” 하고는 어정쩡하게 아이들과 대화를 마치고, 새로운 환경을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각이 나로 하여금 새벽 시간을 서둘러 출근을 재촉하였다.

4. 교육과정을 통해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쉽게 쉽게 만들어도 교과서는 어렵다고 한다. 이리함이 바로 교과서의 현장성과 현실성의 부족함에서 시

작된 것은 아니었는지, 새 교과서관의 철학을 생각해 본다.

교사는 교과서를 어떻게 재구성하여 가르칠 것인가?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교과서의 활용에 있어서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과서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까?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수업 상황에서 교과서는 어떻게 쓰일 것인가?

교사들은 인터넷과 교과서를 어떻게 연관시켜서 사용할 것인가?

정말 교과서는 쉽게 쉽게 만들어도 어려운 것일까?

▣ 맺는 말

내로라하는 편집자들이 몽땅 나와 고개를 들고 있는 들뜬 요즈음에 ‘교과서 편집자의 변’을 운운한다는 것이 조심스럽고 숙연해지기까지 하면서 교과서에 대한 향수가 아른거린다.

교과서에 무엇을 담으려고 합니까?

좋은 컨셉트의 교과서란 학생들로부터 흥미를 유도하고 매 페이지를 열 때마다 새로운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교과서를 만든다는 거, 학교 교육의 컨설팅 기획자가 된다는 거, 흔히 편집자들은 ‘컨셉트!’를 연인에 비유를 하면서, 컨셉트 방향을 잘 유도하면 연인으로, 못하면 남이 될 수도 있다는 이해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10대 학생들 수준에 어울리는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적 배려를 고려한다면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 데 기대 이상의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편집자들에게는 교과서의 미래, 교과서의 살아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교과서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전·진화되어 왔다. 좋

은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연구 영역이 넓어져, 좋은 교과서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잘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향수 탓일까? 지금 생각해 보면 교과서를 편집한다는 것은 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목말라하는 편집자들에게 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피드백, 이후 만들어 낼 도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그들을 부지런한 개발자로 만들지 않았나 싶다.

일을 즐길 줄 아는 개발자들이여! 어떻게 해야 함께 만들 수 있는지 방법을 아는 편집자들이여! 교과서를 편집할 준비가 되었나요 ?!

훌륭한 요리사라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맛을 내기도 하며, 모양도 달리 낸다고 한다. 왜일까? 음식은 누구나 다 할 줄 안다. 그러나 맛에 따라 음식 모양에 따라 그릇 등의 모양에 따라 맛과 멋을, 식탁의 매너와 분위기에 따라 색다른 음식 맛을 표현하게 된다고 할 때, 우리 편집자들의 역량을 한껏 업시켜 봄은 어떨까…….

질 좋은 교과서에 대한 욕심을 마음껏 부리는 당신이 진정한 프로가 아닐까 싶다. **연**



그래도 편집 덕에.....!

글 유 훈(동화사 편집위원)

1 70년 초, 강원도 백골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마친 나는 군에 재입대한다는 각오로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어디 내 뜻과 같이 쉽게 먹혀 주는 호락호락한 게 아니어서 누님 댁에 한 달간만 밥 좀 먹여 달라고 빌붙은 노릇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째에는 스을~슬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즐기치게 버텼다.

결국, 일 년이 가까운 세월을 흘려 보내고서야 드디어 나에게도 ‘서광(瑞光?)’이 비쳐 오기 시작했다. 졸지에 두 군데에서 ‘함 보자.’라는 기쁘고도 기쁜 소식이 임(臨)한 것이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삼성’과 또 어릴 때부터 눈에 익은 ‘K’ 출판사였다.

행복한 고민을 이틀 동안 하던 나는 출판사를 선택했다. 까닭은 대학 교수로 계셨던 아버지의 문집을 내 손으로 직접 발간해 보자는 작은 소망 때문에.....! 기간은 한 2~3년이면 족할 듯싶었다.

아뵘싸! 순간의 선택이 평생 간다는 광고 문구가 당시에 소개되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없지는 않다. 지금까지도.

▣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다냐?

‘K’ 출판사에 입사하여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있노라니, 나누는 말들이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

을 수가 없었다.

“어이, 김 과장! 이 미다시(제목, 표제, 표머리) 말이요, 왜 ‘꾸구리[테 두른 문자]’ 안 했어?”

“그거 ‘꾸구리’ 하면 보기 싫어요. ‘무지 아미[무늬 없는 망]’에 그냥 ‘백발자[희게 뽑는 글자]’가 낫니까요.”

“그런데 이거 조판은 어케 된 거이야, 응? 이 문장, ‘사시까에[바꿔 끼우기]’ 하랬더니, 그냥 있네?”

“.....?”

한참 어리둥절해 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다.

K 과장이 나를 불렀다.

“저기 류 선생, 좀 볼까요?”

“아-! 저 말입니까?”

대답도 상큼하게 쪼르르 K 과장에게로 달려 나갔다.

갔더니, 100만 원권 현금 지폐 다발 두께쯤 되는 그 야말로 방석 만한 원고지 뭉텅이를 톱 던져 주며,

“이거 사흘 내로 ‘와리쓰케[원고 지정]’ 해 놓도록.”

“예? 아, 예에!”

공손히 받아들고 내 자리로 왔으나, 정신이 멍했다.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내 옆에 앉아 있는 몇 달 선배에게 물었다.

“이형, 과장님이 이 원고지 주며 사흘 안에 ‘와리바씨[소독지]’ 해 놓으라는데, ‘와리바씨’ 라면 중국집에서 자장면 먹을 때 쓰는 ‘나무젓가락 아니요?’

이형은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다가 실실 웃기 시작하더니, 배를 잡고 아예 책상 위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 참느라 눈물까지 지일질 흘리는 것이다.

나는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다.

“아니 뭐가 우스워. ‘와리바씨’가 뭐난 말ियो?”

그 ‘와리바씨’가 ‘와리스게(わりつけ(원고 지정))’임을 파악한 나는 선배에게 술 사 줘, 밥 사 줘 하며 소위 ‘레이아웃’을 익혔다.

그렇게 편집을 해 나가는 동안 어느덧 나도 ‘중견’ 편집자가 되어 ‘와 주십사, 돈 더 줄게.’ 하는 소리도 들어가며 잡지사로, 참고서 출판사로 단행본 출판사로 돌아다녔다. 당시에는 이렇게 불려 다니지 못하면 실력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기도 했던 것이다.

일본어투성이인 편집 용어를 나름대로 익혀 그럭저럭 별 어려움 없이 편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번은 ‘D’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 J 전무가 날 부르는 것이었다.

“류 선생, 여기 이 페이지는 ‘가쿠시 놈블(숨김 면주)’로 해야지!”

“예?”

“.....?”

“가쿠시 놈블이.....?”

“아니, 여기는 ‘나카 토비라(단원 속표지)’ 아니요.”

“나, 나카 토, 토비라요?”

‘토비라’가 속표지인 것은 알겠는데, 웬 ‘나카 토비라’란 말인가!

전무님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 ‘미다시’는 ‘꾸구리’로 하세요. 이래 놓으면 아주 보기 싫어.”

“.....!”

“또 이쪽 부분은 ‘베타즈리(행간 없이 조판)’로 하고, 요기 요 부분은 ‘시로누끼(백발, 반전)’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애.”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 먹는 소리다냐잉?’

“류 선생, 지금 알아듣기는 하는 거요?”

“예? 아 예예! 열심히 알아듣는 중입니다. [니미럴, 알기는 뭘 알아! 암마, 우리 말 좀 써라. 응!]”

“에 또, 요 부분은 말ियो. 밑에서 위로 ‘보카시(게조, Gradation)’로 하도록 해요. 알았어요?”

“물론 알지요. 알다마다요.”

나는 전무님이 이야기한 것을 속으로 외워 두느라 맘이 다 날 지경이었다.

“음, 표지는 이만하면 되겠어. 미술 팀에 가서 표제지는 ‘하꾸오시(금박)’로 해 달라고 하세요.”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도대체 알아먹어야 일을 하지.

또 한 가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추억 하나.

‘M’이라는 국내 첫손 꼽는 한문(漢文) 관련 단체 일을 할 때였다.

‘지형(紙型)’까지 뜯 상태에서 또 지형 교정을 보겠노라는 연세 드신 한학자 한 분이 있었다. 속으로 ‘열불(?)’이 치밀어 올랐지만, 어찌겠는가? 그대로 따를 수밖에!

결국, 한 글자가 틀린 게 발견되어 직접 지형에다 틀린 글자를 떼어 내고 활자를 직접 쏘는, 그야말로 “상감(象嵌 : 쏘강)”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쏘아 놓고 교정지를 밀어 놓고 보면 이놈의 활자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고 빼딱하니 찍혀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었다.

결국, 그 판만 다시 뜨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값진 경험이라 생각된다. 그 노학자께서 지금도 건강하신지, 간간하신지 궁금하다.

‘D’ 출판사에서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를 합격시켰을 때의 일이다.

그때에는 합격된 교과서는 ‘지도서’까지 합격시켜야 완전하게 합격이 되었다. 일정에 쫓겨 ‘현판걸이’로 많지 않은 부수를 찍어 문교부(교육부)로 제출해야 될 즈음에 4×6 배판의 납활자 조판 상자 두 개를 들고 냅다 뛰다가 한 계단이 조금 높은 곳에 걸려 와르르 다 쏟아 버렸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시간은 없는데.

울고만 싶은 심정으로 주섬주섬 주워 모아 조판과 장에게로 가져갔더니, 날 힐끔 본 조판 과장도 내 모습이 처량하게 보였던지 대뜸 복원을 시켜 나갔다. 거꾸로 된 활자(아주 작은 7포인트 짜리도 있었다.)를 그야말로 손이 안 보이게 움직이더니, 잠시 뒤에 교정지를 밀어 주며 대조를 해 보라는 것이다. 그 작은 활자들이 두세 군데만 빼고 거의 모두 제자리에 박혀 있는 게 아닌가! 정말 귀신이 울고 갈 지경이었다.

이런 강호의 대가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교정하는 동안, 스스로의 안목(眼目)을 키워 나가는 계기가 되었고, 레이아웃을 하며 ‘황금 분할’은 체질적, 육감적이 되었으며, 색(色)의 구사를 자유자재로 하게 되는 미술적인 감각도 함께 길러졌다.

강호 출판계를 섭렵하는 동안, 돈은 결코 벌지 못했지만, 두 여식을 대학 졸업까지 시켰으니, 그리 ‘손해 본 장사’는 아닌 듯싶다.

▣ 오늘의 나는 매우 떳떳하다

지금의 나는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에다 국전 서예와 문인화 부문에 입·특선을 거친 작가로 있다.

물론, 어릴 적부터 시인(詩人)의 꿈과 서예, 문인 화가로서의 꿈을 키워 온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곧 국전 심사위원도 되고, 초대 작가도 될 것이다.

이 모두가 나는 편집 덕이라고 생각한다.

편집 덕에 수많은 남의 글을 읽게 되는 특혜를 누린 결과로 생각한다.

또, 수많은 삽화가들을 만나 함께 일하고 술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표지 디자이너들과 만나 일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나눈 것이 모두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만약에 출판을 선택하지 않고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과연 지금의 ‘나’가 있을까?라는 강력한 의문이 드는 것이다.

비록 돈은 지금보다 더 벌었을지는 모르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일 것이다.

이제는 규모는 작지만, 모(某) 출판사에 ‘편집위원’으로 있으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깊은 인연의 끈이 작용하여 나와 떠 동갑에 태어난 날짜도 기막히게도 딱 맞아 떨어지는 ‘L’ 전무님이 튼튼하게 내 뒤를 돌봐 주고 ‘훈수’를 두어 준다.

처음 이 출판사로 왔을 때 L 전무님이 도와 줄 게 뭐 없느냐고 물었다.

그때 나는

“원고지나 1련 인쇄해서 곁에 놓아 달라.”

라고 요구했다. 그랬더니, 웬걸? 이튿날 아침에 컴퓨터를 똑딱 설치해 놓는 것이 아닌가!

그때만 해도 ‘컴맹’ 예다가 컴퓨터 자체를 불신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지금은 불과 1년 사이에 모든 원고는 물론, 온갖 것을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다.

이제는 개인 블로그까지 만들어 1년 정도 되는 기간에 다녀간 사람이 30,000 명을 훨씬 넘고 내 글을 스캔해 간 사람이 1,100 회를 넘는 정도가 되었다.

만약 그때 ‘L’ 전무님이 내 말대로 원고지를 인쇄해 곁에 놓아 주었다면 아직까지 컴퓨터는 다른 세상의 물건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또, 컴퓨터 덕분에 책상도 깨끗해졌다는 것이다. 모두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L’ 전무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아직도 나는 성취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이제는 소설 삼국지를 훌쩍 뛰어넘는 ‘베스트셀러’를 내는 일만 남았다.

왜 못 낼 것 같은가?

강호 대가들께서 지켜 보시라. 곧 무슨 일을 내고야 말 터이니.

짧은 지면이지만, 그 동안의 내 소회를 풀게 해 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감사 드린다. 연

더 행복한 국어 수업을 위한 몇 가지 생각

글 이우경(온양여자중학교 교사)



1. 교과 정체성에 관하여

러시아의 아름다운 학교들¹⁾에서는 국어 시간을 ‘마음의 시간’이라 부른다고 들은 적이 있다. 그 옅하고 깊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맑게 하거나 마음을 자라게 하며,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 모든 배움과 실천을 국어 교과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쩌면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이라는 현재 우리의 국어 교과 정체성이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퍼뜩 스치고 지나갔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의 존재를 부정하는 현대 인식론이나 그 근원이 되는 현대 물리학의 이론들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인류의 지식의 총량이 급증하고 문명 전체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대 학문이나 학교의 교과목들도 그 정체성의 문제를 다시 성찰하고,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어야만 변함없는 생명력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국어 교과도 마찬가지이다.

시대와 정치 권력의 성격에 따라 급격하게 교과 정체성의 변화를 겪어 온 도덕 교과와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잘 살펴보면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어 교과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발전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가치(국가 이데올로기)를 중시한 세월도 있었고 언어학과 문학에 관한 국어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던 때도 있었다.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을 본격적인 교과 정체성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의 일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 학습 주체에 대한 인식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수준별 과정이 도입되고 있지만 국어 교과 정체성은 여전히 언어 사용 능력 신장에 두고 있다.

국어가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언어 사용 능력은 삶의 기본 도구가 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현장의 국어 교사들이 국어 교과서를 가르치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는 ‘읽’과 ‘삶’의 연관 문제이다. 물론, 현재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삶에 필요한 언어 기능들을 가르쳐야 할 중요한 요소들로 다루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중시하다 보니 국어 교과를 ‘국어’와 ‘생활 국어’로 나누게도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어 지식’을 중시하던 과거의 교과서나 ‘언어 기능’을 중시하는 현재의 교과서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삶’과 유리된 채 지극히 기능적

인 형태로 시험 문제 정답 맞히기식의 수업을 하게 만든다. 학생들은 이런 수업이 자신의 미래의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사들도 이런 수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 나이 많은 교사들은 과거의 방식이 가장 편안하다고 여기고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30년이 넘게 교단에 서야 할 젊은 교사들은 이런 현실을 암담해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수업 방법을 개선할 줄 모르고 융통성 없이 단순 기능적인 ‘전달자’에 머물려고 하는 교사들의 나태함 때문만은 아니다. 교사들은 이미 무수히 ‘방법’의 변화를 시도해 왔다. 수업 방법을 개선하라는 요구는 교사들이 장학협의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듣는 요구 중의 하나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수업을 ‘그저 견디고 있는’ 아이들 앞에서 매순간 고민을 해야 하는 교사들은 가르치는 이로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성과들도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다. 크고 작은 국어 교과 모임들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도 그런 자료들은 넘쳐나게 많다.

문제는 더욱 근본적으로 국어 교과 정체성을 정하고 있는 근본 철학이나 교과서 지식을 다루는 기본 입장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일 게다.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언어의 모습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더구나 언어 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맥락까지 고려한다면 언어 활동은 매우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총체적 활동을 기능적으로 파편화하여 삶의 실제 맥락에서 유리되게 하고 있다. 각각의 언어 기능을 절대적 원리로 하여 이를 실제 언어 생활에 적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을 정체성으로 하는 현재의 국어 교육도 국어와 국문학에 대한 지식들을 금과옥조처럼 달달 외우도록 했던 과거의 ‘지식 중심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근대적 지식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를 그 내용인 ‘사고’와 ‘가치’에서 분리하고 인간의 삶과 사회와 그 사회가 축적해 온 ‘문명’으로부터 분리하여 도구적 기능으로 바라보게 하는, 국어 교과의 정체성을 ‘국어 사용 능력 신장’에 두는 입장은 근본적으로 지식이 주체와 분리된 채 어딘가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과 너무나 닮아 있다. ‘지식’의 위치에 ‘기능’을 단순 대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관은 이미 현대 인식론에 의해 수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²⁾. 현대 인식론에서는 지식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삶으로 관계 맺는 세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계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한다. 지식이 인식 주체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세계와 실천적으로 교섭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글쓰기 수업을 해 보면 아이들은 자신의 삶과 구체적 연관 속에서 다양하게 읽고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고 나서 글을 쓸 때 쉽고 편안하게 다양한 글을 쓴다. 사고와 표현과 조직의 총체적 활동인 글쓰기에서 사고나 표현이나 조직은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글쓰기 활동 안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글쓰기를 사고와 표현과 조직으로 나누고 다시 그 각 영역의 기능적 방법들로 나눈 다음 이것을 학년마다 위계적으로 배치하는 형태로 다루고 있다. 이런 교육과정이 교과서로 구체화되면 그 기능 요소를 배우느라 실제로 ‘글쓰기’를 할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만다. 실질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글쓰기에 관한 기능’을 절대화한 지식 요소로 배우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문학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그 소설, 그 시가 우리 삶에 던지는 의미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는다. 시에서 ‘심상’이라는

요소를 가르치기 위해 거기에 적당한 시를 선택하고, ‘시점’이라는 요소를 가르치기 위해 거기에 알맞은 소설을 선택하는 식이다. 문학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총체적으로 느끼고 누리게 하기보다 문학에서 알아야 할 요소들을 배우기 위한 도구로 문학을 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나리자에게서 미소만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듯이, 한 사람을 그의 삶과 그의 사고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의 활동으로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듯이, 언어는 그 내용과, 또한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가치와, 그것을 이룩해 온 오랜 인류의 문명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원래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어서 부분들로 절대화할 때 그것은 이미 생명을 잃어 죽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지식이 죽은 것이 되는 순간 교과서는 참된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어 교과 정체성’ 문제부터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논의는 국어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학자들 뿐만 아니라 교육 철학, 교육과정, 언어와 문학에 관하여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작가들, 현직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단원의 구조에 관하여

현재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조를 보면 단원의 길잡이(단원 학습 목표 제시), 읽기 전에(배경 지식 활성화 및 관심 유도), 읽기 중 활동, 학습 활동(내용 학습) 목표 학습(학습 목표 실제 수행), 적용 학습(다른 상황이나 제재에 적용 연습), 생각 넓히기, 보충 심화(자기 점검 및 보충, 심화)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런 단원 구조는 크게 보면 ‘목표-달성-평가’ 학습 단원 모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과제들이 설정되며, 단원 마무리에 확인 평가를 하는 단원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이 ‘목표-달성-평가’ 단원 모델은 교육의 사회적 효

율을 중시했던 미국의 교육학자 보빗(Framklin Bobbitt)이 포드 시스템(Ford System)의 기초가 된 테일러(Frederick Winslow Taylor)의 근대적 노무 관리 원리를 교육과정의 작성과 평가에 원용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생산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작업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품질 관리 테스트를 통해 이를 평가하는 노무 관리 시스템과, 단원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제와 활동을 시행하도록 하며, 단원 마무리에 점검, 평가하는 우리의 교과 단원 구조가 너무나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학습 단원 모델은 한 교실에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교사가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대량 교육 체제의 모델이다.

단원 모델이 산업화 시대의 대량 교육에 적합한 ‘목표-달성-평가’ 모델이라는 것은 아마도 국어 교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 이러한 단원 모델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산업화 시기의 대량 교육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온 성과에 대해서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의 학교들에서 이미 한 세기 가까이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주제-탐구-표현’ 모델로의 전환 모색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쯤 돌아볼 때가 되었다. 산업 구조는 이미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며 국가가 표준 지식을 정하고 이를 획일적으로 교육하던 대량 교육도 이미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주제-탐구-표현’ 모델은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적이고 협동적인 탐구를 학습 과정으로 담으며, 그 결과를 평가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나 책 만들기나 연극의 형태로 표현하여 학습 경험을 문화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단원 모델이다³⁾.

영국의 여학교에서 가정 시간에 만든 옷을 교내 패션쇼에서 경매에 붙여 인근 양로원에 기부하고, 독일의 초등학교에서 ‘딸기’를 주제로 공부하


면서 다양한 종류의 딸기를 맛보고, 딸기잼을 만들어 보고, 딸기의 생태에 대해 배우고, 딸기를 형질 인형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 모두 ‘주제-탐구-표현’ 모델의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이미 많은 교실에서 아이들의 상호 학습을 중심으로 수업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으며 ‘목표-달성-평가’ 모델에서 ‘주제-탐구-표현’ 모델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와의 관련성을 찾아낼 때 비로소 배움의 주체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주제-탐구-표현’ 모델의 학습 단원은 아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출발하여 협동적인 토의 학습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이고 본질적인 맥락을 탐구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해 이를 심층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과 공유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이해 방식을 음미하는 반성적인 배움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얼마든지 우리의 국어 교과서와 수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도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될 이별’을 주제로 하는 단원 속에서 만날 수 있고, 학생들은 이별을 다룬 다른 텍스트나 드라마, 노래 등을 탐구하여 삶도, 사랑도 유한한 것이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별에 대처하고 견디어야 함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크든 작든 자신의 삶에서 만난 이별에 대해 시나 수필이나 연극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물들로 문화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활동은 이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더욱 실제적으로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요즈음 대학 입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통합 논술도 교육과정 없이 입시 형태로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또한 교과의 단

원 모델을 ‘주제-탐구-표현’의 형태로 전환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지금 저 수많은 교실들에서 실제로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배움이 가슴 떨리게 즐겁고, 삶을 자유롭게 하는지,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성찰해 보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교사가 수업으로 더 이상 아이들과 소통할 수 없고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체험을 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교실 안의 교육적 관계들이 무너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아 주어야 할 것이다. 배움은 나의 삶과 세상 전체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 때, 그리고 그것이 유용하게 쓰일 만한 것일 때 즐거움이 될 수 있다. 

- 1) 페레스트로이가 이후 교육 지원이 어려워지자 학교를 되살리기 위해 일어난 교육 실천 운동에 참여한 학교들, 톨스토이의 교육 사상과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2)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후기 구조주의, 탈구조주의, 그리고 해석학 등의 후기 철학적 인식론에서는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한 객관주의적 지식 개념은 가정에 불과하며 지식의 객체와 주체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 3) 사토마나부는 그의 저서 『교육 개혁을 Design한다』(손우정 역, 공감, 2001.)에서 일본 교육과정 개혁의 기본을 ‘목표-달성-평가’ 모델의 교육과정을 ‘주제-탐구-표현’ 모델의 교육과정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21)

오병목

-(주)천재교육 사장-



‘천재교육’ 하면 우선 ‘해법’이 떠오르게 마련이고, ‘해법’ 하면 또 수학의 대명사로 통하지 않는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교재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수학 기본서의 전설로 지금까지 그 명성을 이어온 해법 수학! 3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어느덧 업계 정상을 달리는 종합 교육 기업으로 우뚝 선 천재교육의 오병목 사장을 만나 그 간의 변화와 함께 교과서 출판 업체로서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① 교육 출판은 불황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러한 교육 출판 업계마저 어려운 시기가 지금인데요. 천재교육은 변함 없이 꾸준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천재교육만의 경영 노하우나 방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21세기 기업 경영의 핵심 코드로 변화와 혁신을 많이들 거론합니다. 여기에 교육 업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교육 환경도 눈부시게 달라졌습니다. 인터넷과 각종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혁신적이고도 효과적인 학습 방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재교육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발빠르게 예측하고 주도함으로써 보다 선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간 쌓아 온 교육 노하우와 방대한 학습 DB를 통해 문제은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1:1 개인별 맞춤 문제를 서비스하는 데 성공하였고, 남보다 한발 앞선 동영상 서비스와 e-러닝을 통한 온라인 교육 사업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의 위

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가치를 발견하여 기회로 만드는 정신,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곳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도전과 개척 정신이야말로 수년 간 천재교육이 동종 업계 매출 우위를 지켜 낸 원동력이라 하겠습니다.

② 천재교육의 교과서 편찬 역사와 더불어 교과서 출판 사업의 특성이나 여타 교재 출판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습니까?

1989년부터 교과서 출판을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18년이 되어갑니다. 2007년 현재 국정 교과서 17과목 19책, 검정 교과서 34과목 58책, 인정 교과서 32책을 발행하여 해마다 성장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적인 성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천재교육은 무엇보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질적인 혁신을 꾀하여 보다 선진적이고 고급화된 교과서를 서비스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육 출판업에 몸담아 온 저로서도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한 나라의 미래 교육을

이끌어 간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막대한 책임감이 따르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교재들 역시 그 의미가 크겠지만, 교과서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산물이라 할 정도로 그 시대의 정신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2세대들이 어떠한 선별이나 가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교과서를 만들 때에는 어떠한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철두철미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교과서 같다고 비유하겠습니까? 게다가 교과서 출판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만큼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해 자본 회수가 늦고 수익률도 낮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출판은 저자와 편집자의 실력이나 책임 의식 외에도 출판 기업의 남다른 사명감과 미래에 대한 선구적인 투자 마인드가 필수적입니다.

교과서 전문 출판 업체 육성과 관련해서 업계가 같은 소리를 내는 이유도 바로 교과서가 가지는 역할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과서 시장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③ 교과서 출판에 있어 질적인 개선에 역점을 두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교과서 출판 기업으로서 천재교육만의 경쟁력과 관련해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국정 교과서가 검 인정 교과서로 바뀌면서 과거에 비해 교과서가 안팎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겉으로 보이는 변화로는 인쇄 품질, 판형, 종이 재질 등이 있겠고, 안으로는 사진, 삽화, 내용 등의 발전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 효과에 있어 어느 것 하나 무시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천재교육은 바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데

목표를 두었고,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자부합니다.

국내 최다수의 전문 편집자와 집필진, 자문위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교과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내용의 질적 수준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계 정상급 전문 디자이너들의 세련된 감각과 정교한 교정 작업이 더해져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적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이야 말로 천재교육이 지금까지 품질로서 인정받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라 하겠습니다.

또, 조판과 CTP 출력 등의 최신 설비, 완전 자동화 인쇄 시스템인 최신형 로토만, 하이텔 고스윤전기, 요시노(48콤팩), 밀러마틴 제본기 등을 도입함으로써 인쇄, 제본 품질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시간당 65,000통(로토만 윤전기)에 달하는 생산 물량과 전국 네트워크 운송망을 이용한 배송 시스템으로 교과서 출판 기획에서 인쇄, 제본, 배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와 첨단 시스템 구축이 바로 천재교육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④ 한국교육산업대상을 받은 바 있는 천재교육은 각종 수상과 아울러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업 분야가 궁금합니다.

천재교육은 유아에서 고등 학생에 이르기까지 연간 3,000여 종에 달하는 교재를 발간함으로써 업계 최대의 교과서 및 참고서 발행을 자랑합니다.

특히, 7년 연속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우등생 해법 시리즈’, ‘우등생 전과’ 등 초등 교재는 그 이름만으로도 브랜드 파워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개인 수준별로 차별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1:1 맞춤 학습을 실현한 학원 프랜차이즈 사

업 역시 전국 각 지역에서 명문 학원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사이버넷 해법수학’, ‘해법스쿨’, ‘GGE 영어전문학원’이 그것입니다.

또, 백 명이면 백 명, 모두 다른 문제를 통해 영역별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회원제 사업으로 ‘해법영어교실’, ‘해법공부방’, ‘바칼로레아 논술’, ‘해법과학교실’ 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등 맞춤 학습지 ‘인터넷 해법수학’, e-러닝까지 책임지는 온라인 학습 ‘해법스터디’, 유치 초등 학습지의 온라인 사이트 ‘리틀천재’, 학생과 학부모의 커뮤니티 ‘툇’ 등 온라인 교육 및 서비스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법수학교실’ 운영으로 수학 문화를 선도하는 ‘천재문화’와 동영상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천재미디어’, 수학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하는 ‘HME 해법수학학력평가’ 및 ‘수학경시대회’와 초 중학교 학생의 기초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국어능력인증시험 J-TokL’, 그리고 고품격 인쇄 출판을 지향하는 ‘프린피아’ 등 모든 사업이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천재교육은 명실상부한 종합 교육 출판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⑤ 교재 연구와 개발에 쏟는 투자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회사의 방침이나 사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천재교육의 4대 핵심 가치가 바로 ‘시장 선도 지향’, ‘연구 개발 중심’, ‘정도 경영 실천’, ‘사회 환원 실천’입니다.

그 중에서 ‘시장 선도 지향’은 명실상부한 교육 출판 업계 선두 주자로서 대한민국 교육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목표이고, ‘연구 개발 중심’은 지속적인 투자와 끊임없는 교재 개발, 그리고 우수한 저자 및 편집 인력 확보를 통해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재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지입니다. 이것은 천재교육의 창립자인 최용준 회

장이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 온 고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재교육도 하나의 기업이기에 이윤 추구라는 명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재교육이 IMF 외환 위기 등 수많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최고 지향, 품질 경영의 정직한 기업 정신에 있다고 확신하기에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교육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정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⑥ 끝으로, 천재교육의 사회 환원 사업 실천에 관해 듣고 싶은데요, 교재 기증이나 장학 사업에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천재교육은 온전히 국민들에 의해 키워진 교육 기업입니다. 그러기에 창립자는 물론 기업 임직원들은 사회 환원은 천재교육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및 학술 연구 단체에 대한 지원을 비롯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등 여러 학교에 장학금, 후원금, 학교 발전 기금, 도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 재단, 군부대, 산간 오지의 어린이들은 물론 중국 조선족 및 세계 각국의 한국 학교에 이르기까지 도서 기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으로 매년 불우 이웃에게 쌀과 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재교육의 나누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입니다.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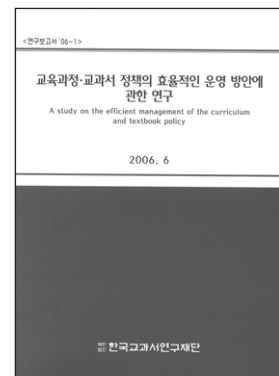
■ 대담 / 최해홍(한국교과서연구재단 사무국장)

2006년도연구보고서소개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보고서 2006-1〉

이 연구는 교육과정 개정과 운영, 교과서의 집필과 적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조직과 역할 및 업무를 검토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의 현황을 검토, 분석하고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또, 이들에 대한 정책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체제와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을 수립하고 개정과 편찬 업무를 추진, 실제 현장에 보급 적용하는데 대한 업무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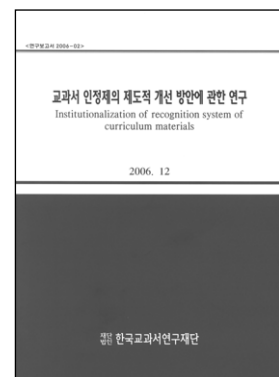


- … 이 연구는 경인교육대학교 김재복(연구 책임자) 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허경철 님, 용인성북초등학교 김만곤 님, 한국교육개발원 박민정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교과서 인정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보고서 2006-2〉

이 연구는 인정 도서 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우리나라 교과용 도서 제도를 인정제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인정받은 도서의 현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 분석하고, 또한 외국의 인정 도서 제도를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정 도서 제도의 법적 제도적 측면을,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의 인정 도서 제도와 그 시행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교과목별 인정 교과서 지위 구분의 재정립과, 인정 도서의 채택, 공급 및 구입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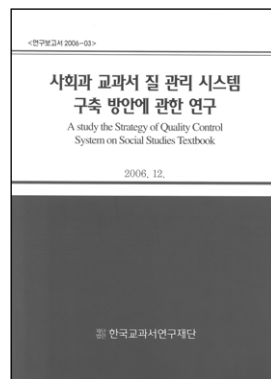
- …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홍후조(연구 책임자) 님, 전 한국교원대학교 함수곤 님, 대한교과서(주) 윤광원 님, (주)금성출판사 조성준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연구 보고서」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 페이지(www.ktrf.re.kr)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과 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연구

〈연구 보고서 2006-3〉

이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기도 하였던 사회 교과서, 특히 국사와 경제 교과서에 대한 오류와 편향성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쟁론 발생과 관련하여 차기 교과서 개발과 검정 과정에서 이러한 논쟁 방지를 위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국사 및 경제 교과서에 대한 오류 사례와 그에 따른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사회과 교과서의 질 관리 체제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교과서의 외형 체제 외에 내용에 관해서도 오류가 없고 편향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교과서의 개발로 우리나라 교과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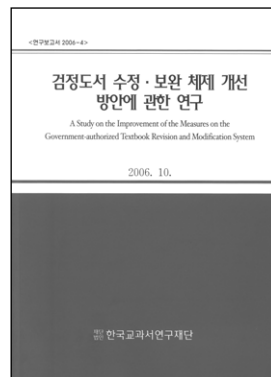


- …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정호(연구 책임자) 님, 박진동 님, 국사편찬위원회 장득진 님, 한국개발연구원 천규승 님, 고려대학교 홍후조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검정도서수정·보완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연구

〈연구 보고서 2006-4〉

이 연구는 현행 검정 교과서의 수정 보완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 교과서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고 있는 교과서의 오류를 파악하여 검정 과정과 교과서 관리 과정에서 교과서 내용의 오류를 줄이고 예방하는 방안과 교과서 편찬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교과서의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교과서 오류 예방과 수정 보완을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 이 연구는 용인성북초등학교 김만곤(연구 책임자) 님, 교육인적자원부 김차진 님, (사)한국검정교과서 강환동 님, (주)대교 주용준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문화관광부 고시 제 2006-31 호(2006년 12월 26일 고시)

교과용도서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을 고시합니다.

1. 적용 기간은 1년(2007. 1. 1. ~ 2007. 12. 31.)으로 함.
2. 보상 대상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 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함.
3.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함.
4.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 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 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5.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 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함.
6.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1만 부 기준)

저작물별		보상 기준	보상 금액	비 고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730 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이하	7,380 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 편 이상 1/2 편 미만	3,680 원	
		1/4 편 미만	2,210 원	
음악 저작물		1/2 편 이상 1 편 이하	4,750 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 편 이상 1/2 편 미만	2,370 원	
		1/4 편 미만	1,400 원	
미술·사진 저작물		1/2 쪽 이상 1 쪽 이하 크기	7,250 원	
		1/4 쪽 이상 1/2 쪽 미만 크기	3,610 원	
		1/4 쪽 미만 크기	2,160 원	

※ 최저 1만 부 이하는 1만 부로 하고 1만 부 초과부터 발행 부수에 비례함.

※ 이사회 개최

- ...우리 연구재단은 지난 해 12월 21일 오전 11시 2006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제1호 : 2006년도 출연금 기본 재산 편입
 - 제2호 : 2007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 제3호 : 감사 선임
- ...우리 연구재단은 2007년 2월 22일 오전 11시 2007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제1호 : 2006년도 결산
 - 제2호 : 2007년도 교과용 도서 발행사 출연금 배분 내역 보고

※ 2007년도 연구 사업 추진

- ...우리 연구재단은 2007년도 정책 연구 과제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과서 발행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게 될 연구에는 약 6천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 〈연구 과제〉
 - 외국의 교과용 도서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 수학 교과서에 대한 학생 교사의 의미 이해 차이 분석
 -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교과용 도서 발행 시스템 표준화 연구

※ 2007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 수증

- ...우리 연구재단은 2007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를 발행사로부터 기증받아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과서정보관'은 현재

우리나라 교과용 도서 26,045책, 외국의 교과용 도서 6,553책을 수집 소장하고 있습니다.

교과용 도서 기증에 협조하여 주신 (사)한국검정교과서, 대한교과서(주), (주)교학사, (주)천재교육, (주)금성출판사, (주)지학사, 향우산업(주)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07년도 발행사 출연금 납입

- ...우리 연구재단은 2007년 2월 22일 이사회에서 2007년도 발행사별 출연 금액을 배분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금을 출연하여 주신 발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사)한국검정교과서 : 235,000천 원
 - 대한교과서(주) : 121,650천 원
 - (주)교학사 : 62,700천 원
 - (주)천재교육 : 42,600천 원
 - (주)금성출판사 : 22,600천 원
 - (주)지학사 : 15,450천 원

※ 교과서 출판 교실 운영

- ...우리 연구재단에서는 교과서 발행사 편집직원의 자질 향상과 교과서 출판에 관한 전문 지식 습득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과서 출판 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의 내용 :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관한 정책 특강, 교과서 출판 기획 및 편집론, 교과서 관련 법규, 교과서 문장론, 교과서와 저작권법, 교과서 편집 디자인론
 - 운영 단위 : 3일(18시간)
- '교과서 출판 교실' 운영 세부 계획은 홈페이지(www.ktrf.re.kr)에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제 5 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우리 연구재단은 초 중 고등 학교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과서의 기능 및 중요성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자 제5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를 실시합니다.

응모 기간은 2007. 6. 1.(금)~7. 16.(월)까지이며, 시상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

부별로 금상 1편, 은상 2편, 동상 3편, 장려상 10편을 각각 선발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특히 금상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합니다. 당선작은 2007. 9. 21.(금)에 발표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재단 홈페이지(www.ktrf.re.kr)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알립니다

고(古) 교과용 도서 수집

우리 연구재단은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연구 기관으로
고(古) 교과용 도서를 수집합니다.

기증해 주신 자료는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교과서 연구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역사적 자료로 소중히 보존하겠습니다.

- 대 상 : 전 교과용 도서(교과서, 인정 교과서, 지도서, 참고서, CD, 테이프 등)
- 수 량 : 제한 없음.
- 기 간 : 수시 접수
- 보 상 : 기증자에게는 '기증서' 교부와 아울러 명단을 영구히 보존하고,
실비 보상도 할 수 있음.
- 연락처 : (우) 158-86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1 동 1018-2 세원 빌딩 4층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담당자 앞
Tel : (02) 2651-1950(대), Fax : (02) 2651-1954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초·중·고등 학교 학생이 전학이나 교과서 분실 등의 사유로 교과서를 개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과서 발행사 홈페이지, 발행사 직매장, 개별 지정 판매 서점, 지역별 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과목·출판사와 저자(지은이)를 정확히 알아야 구입이 편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 교과서 발행사 연락처

구 분	발행사명	전화 번호	홈 페이지	발행 도서 (각 발행사 홈페이지 참조)
검정 교과서	(사)한국검정교과서	(02) 3663-5409~12	www.ktbook.com	※ 중·고등 학교 검정 도서 전과목
국정 교과서	대한교과서(주)	(041) 861-3183(ARS)	www.daehane.com	※ 초등 학교 : 국어, 수학, 영어를 제외한 전체 과목(도덕, 사회, 과학, 실과, 예·체능) ※ 중 학 교 : 국어, 생활 국어(1, 2, 3학년) ※ 고등 학교 : 해양 과학, 공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 31 책, 2·1 체계
	(주)교 학 사	(02) 7075-120	www.kyohak.co.kr	※ 초등 학교 : 1~6 학년 국어(읽기, 말하기·듣기, 쓰기) ※ 중 학 교 : 국사 ※ 고등 학교 : 국어, 문법, 국사, 농업계, 상업계
	(주)금성출판사	(02) 2077-8145	www.kseshop.co.kr	※ 초등 학교 : 3~6 학년 영어(영어 CD, 영어 TAPE 포함) ※ 중 학 교 : 생활 외국어 ※ 고등 학교 : 아랍어 I·II, 외국어계
	(주)지학사	(02) 330-5302	www.jihak.co.kr	※ 중 학 교 : 도덕 1, 2, 3학년 ※ 고등 학교 :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생활과 과학, 체육계 5 책
	(주)천재교육	(02) 3282-2851	www.chunjae.co.kr	※ 초등 학교 : 1~6 학년 수학(수학, 수학 익힘책) ※ 고등 학교 : 확률과 통계, 이산 수학, 과학계 15 책
	향우산업(주)	(02) 790-5947		※ 고등 학교 교련

❑ 발행사 직매장

구 분	위 치	전화 번호
(사)한국검정교과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 빌딩 2층(6호선 망원역 부근)	(02) 323-4682~3
대한교과서(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본사 1층)(7호선 논현역 부근)	(02) 541-8247

※ 기타 개별 지정 판매 서점·지역별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 및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cutismoe.gov.kr) 교과서 소식 참고

교과서 전문 연구지

교과서연구

『교과서연구』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의 성과·교육과정·교육 자료 등 교육 현장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연구』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 원고를 모집합니다. ”

• 원고 내용 •

- 교과서 및 교육과정 관련 연구와 교육 현장의 교과 운영 현황과 교과서 활용 방안 등
- 교육 현장과 관련된 교수·학습의 특색 있는 내용 등
- 『교과서연구』를 읽고 느낀 점이나 새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등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수필·시·만화 등

• 원고 매수 •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A4 용지 10포인트 3.5매 기준)

• 원 고 료 •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보내실 곳 •

- [(우)158-86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18-2 세원 빌딩 4층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연구』 편집자 앞
(E-mail 주소: editor@ktrf.re.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651-1950으로 문의 바람